

보육활동의 길잡이

우리네 아이들

'98.7.8



한국보육교사회

서울시 중구 장충동1가 38-84 여성평화의 집 3층 (유) 100-391 ☎ (02)275-8505~6 FAX: 275-8506 KDTA (천리안)

어린이 권리선언문

우리가 누구이든지, 우리의 부모님이 누구이든지, 그리고 피부색이 어떻든간에, 남자인지 여자인지간에, 영어를 쓰든지 한국어를 쓰든지 서울말을 쓰든지 사투리를 쓰든지, 무슨 종교를 믿든지, 또한 장애인이면 아니건, 부유하건 가난하건간에 상관없이 우리 어린이 모두는 이 선언문에 적혀있는 권리를 가진다.

1. 어린이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질 권리가 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진다는 것은 어린이마다 지니는 개성이 존중되고, 특이한 행동을 한다고 해서 문제아로 취급받지 않으며, 다양한 발달과정과 그 속도의 차이가 인정되며, 어른들과는 다른 어린이만의 독특한 사고체계를 인정받는다라는 것이다.

1. 어린이는 하나의 인격체로서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

이는 어린이가 어른들의 칭찬과 꾸중의 대상이 아니라 자신의 생활을 스스로 해나가고 자신이 행동하는 것을 책임지는 능동적인 존재라는 것과, 어린이의 의사가 어른의 의사와 마찬가지로 존중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1. 어린이는 놀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어린이가 마음껏 노는 것은, 다양하고 자극이 많으며 위험하지 않은 물빛거 환경 뿐만 아니라 놀고 싶을 때 놀 수 있고, 어른이 가르쳐주는 말, 행동이 아니라 내가 생각한대로 소리 지르고 뛰어다닐 수 있는 다양한 표현의 권리를 의미한다.

1. 어린이는 안정된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안정된 보호란 사고가 나지 않도록 보호되는 물리적인 환경 뿐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사회로부터 동등하게 존중받을 권리, 항상 부모, 사회로부터 적극적이고 따뜻한 애정을 느끼고 도움을 받을 권리, 폭력적인 경험으로부터 보호될 권리를 의미한다.

1. 어린이는 친구를 사귈 권리가 있다.

어린이는 친구들과 어울려 노는 것을 격려받고 피부색이 다른 친구, 몸이 불편한 친구 등 다양한 친구들과 사회적 관계를 가질 권리가 있다. 또한 어린이는 어른과 종속적인 관계가 아닌 동반자로서 관계를 가지며 신뢰감과 애착이 있는 관계를 형성할 권리가 있다.

1. 어린이는 자신의 생리적 욕구를 편안하게 충족시킬 권리가 있다.

어린이는 즐거운 식사시간을 가질 권리와 균형있고 공해 없는 음식을 먹을 권리, 충분한 휴식을 가질 권리가 있다. 또한 적절한 휴식공간과 어른의 도움없이 어린이 스스로 배설할 수 있는 시설을 가질 권리가 있다.

1. 어린이는 자연 속에서 자라날 권리가 있다.

어린이는 햇빛과 바람을 맞고 흙놀이를 할 권리, 못버릴 걱정없이 마음껏 뛰어놀 권리가 있다.

보육활동의 길잡이

우리네 아이들

98.7/8

우리네 아이들

98.7/8월호
<통권 62호>

<표지사진>

"아주머니 이거 얼마예요?"
"1,000원 주고 가져가세요.
싸게 드리는 거예요."
생활교육속에 싹싹 자라나는
우리아이들!
시장놀이는 너무너무 재미있
어요.
(사진 보내주신 이 : 광주
도담도담어린이집)

일하며 생각하며 / 4

'21세기의 보육'을 만드는 사람들

이창미

교육제안 / 6

현장교육의 새로운 대안을 제안하며

김연숙

보육정책 / 14

유아교육법안에 대한 검토

김정희

여름연수 / 17

우리 아이들의 삶을 더욱 더 풍요롭고 창의적으로 만드는
주게스트페디 통합예술교육

서은희

통합교육 / 20

성공적 통합을 위하여

윤선아

기획 / 24

아이들에게 무엇을 보여주느냐에 따라
아이들은 세상을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이정주

음악교육 / 28

측정 및 평가

손현민

보육환경 / 34

보육시설 운영에 대한 교사 자기평가 조사

한국여성개발원

어린이건강 / 40

어린이집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전염성 질환

정기현

연장교육 / 51

밤움의 동네 나들이

임미녀

아이들이 들려주는 옛날이야기

씩씩이어린이집

56 / 연장소식

박선미

제2기 신진교사 교육을 받고 나서...

58 / 소모임 소개

강선희

우리 것을 배우립니다

59 / 사외버정보망

어린이독서 길잡이 상담실을 열었어요
어린이도서연구회

60 / 좋은 그림책 소개

『검피아저씨의 뱃놀이』, 『검피아저씨의 드라이브』

고영미

62 / 가정마당

7월1일 가정폭력방지법이 시행됩니다
가정폭력방지법 제정특별위원회

64 / 세상읽기

위양자

교육개혁-그 임태의 고통을 준비하자

66 / 아이들의 세상 만들기

한미어린이집에서 생긴 일

68 / 우리들의 목소리

권소희

『영상매체의 교육적 활용』 강의를 듣고

박혜경

『여고괴담』을 보고서...

70 / 펴줄

71 / 보육계 풍향

74 / 소식과 소식

77 / 편집부에서

짜·임·새

1998년 7/8월 합본호(통
권 62호)/첫발행 1992년
5월25일/펴낸곳 한국보육
교사회/펴낸이 정희연/유통
이 박정애, 이선주, 황미혜
/펴낸날 1998년 7월10일

일하며 생각하며

.....

'21세기의 보육'을 만드는 사람들

이창미 · 서울 곡교어린이집 원장

절반의 성공

많은 사람들은 우리 보육사업의 문제점을 말한다. 양적인 팽창으로 인해 보육사업이 실패했다고 단언하는 분들도 있다. 그러나 영유아보육법이 거론된 1990년 이후 8년이 지난 지금, 8배의 보육시설 증가와 함께 11배의 보육아동 수가 증가하였다. 실제 보육사업의 실패를 논할 만큼의 문제가 있었다면, 그 많은 시설에, 그 많은 아동이 채워지지 못했을 것이다. 정부의 '보육시설 확충정책'에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고, 그로 인해 혼란스런 현실을 맞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보육인들의 헌신적인 직업의식과 노력으로 저소득 가정과 맞벌이 가정의 영유아들, 장애아동 등을 맡길 수 있는 터전이 마련된 것도 사실이다.

1990년에서 지금에 이르는 보육사업의 성과들은 '절반의 성공'으로 평가하고 싶다. 그 많은 시행착오와 혼란조차도 소중한 경험들로 간직하고 싶다. 그 이유는 그 치열했던 지난 과정이 우리 나라의 유아교육과 탁아사업에 있어서 큰 획을 긋는 역사적 시점으로 정리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아동성장에 있어서 '교육과 보호'는 떨어질 수 없는 것으로 이해되고, 탁아는 가정 경제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복지적 기능과 아동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기 위한 교육적 기능을 함께 실현시켜야 한다는 통합적 서비스로서의 '보육'이라는 개념이 정착된 것은 우리가 이루어낸 성과 중에 하나이다. 무엇보다도 보육사업이 공익사업으로서 사회적 인식이 확대되어, 자녀를 키우는 일은 더이상 가정과 여성 개인의 역할로 국한되지 않고, 국가와 사회의 적극적 관심을 이끌어낸 것도 또한 우리가 만들어낸 성과들이다.

현재의 보육사업에는 분명 많은 문제와 혼란을 발생하고 있지만, 이 모든 문제와 혼란조차도 보육사업을 바로 세우는 기회로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완전한 성공'이 아니라 '절반의 성공'일지라도 그것은 '나머지 절반의 성공'을 위해 우리가 잘 전제해왔던 과정으로 평가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아름다운 역사적 전통과 의미있는 소중한 경험을

1921년 태화관에서 빈민구제사업으로 시작했던 탁아프로그램을 그 시작으로 본다면 우리 보육사업의 역사적 뿌리는 80년 가까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1980년대 '지역탁아소'라는 이름으로 노동운동이나 빈민운동 활동가들이 설치했던 민간주도의 탁아사업은 현재 보육사업의 정신적 뿌리와 다양한 경험을 제공해주고 있다. 그 시대 상황마다 소외되고, 보호받지 못하고, 어려운 환경에 놓여있는 아동들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하는 고민에서부터, 유아교육 이전에 '아동을 어떻게 안전하고, 건강하게 키울 것인가'라는 아동의 1차적인 욕구에 대한 관심과 우리가 우리 아이를 키우는 일에 해왔던 많은 노력과 다양한 경험들은 충분한 역사적 가치와 의미가 있는 일들이다. 우리에게 생존권조차 위협받는 아이들을 위해 아무 일도 하지 않았던 '유아교육 전문가'와 '국가'로부터 '교육적이지 못하다'는 비난을 받으면서도, 우리 아이들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일했던 시절이 있었다. 그때의 정신과 열심과 노력이 지금의 보육사업을 지탱해주는 원동력이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그것을 잃어버릴 때 우리는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님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만이 가질 수 있었던 그 소중한 경험들을 아름답게 가꾸고 지키는 일이 필요한 시절임이 분명하다.

'21세기의 보육'을 만드는 사람들

나머지 절반의 성공을 꿈꾸며, 우리는 '21세기의 보육'을 만들어야 한다.

나머지 절반의 성공이란 어떤 일들일까? '21세기의 보육'은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그리고 누가 만들 수 있는가? 어떤 이들이 나서야 하는가? 많은 물음과 함께 많은 이들이 나서고 있다. 교수님들, 시설장들, 보육행정가들 그리고 정치가들, 이렇게 많은 이들이 우리 보육사업을 돕고 있다고들 한다. 하지만 진정한 '아동 중심'의 사고와 '보육사업의 정체성'을 갖고 있지 않은 도움과 외침들은 어쩌면 우리가 애써 이루어낸 '절반의 성공'마저 망가뜨릴지 모른다는 두려움으로 가득하다.

무엇보다도 보육사업의 정체성을 세우는 일이 중요한 때이다. 우리 보육사업의 역사적 뿌리를 찾아내고, 항상 소외되고, 보호받지 못한 아이들 편에서 일했던 우리의 작은 경험들과 아름다운 전통들을 소중히 간직하고 키워내는 일은 우리가 21세기의 새로운 '아이들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일의 시작이 될 것이다.

알맹이가 없는 껍데기는 이제는 다 버리고 가야 한다. 앞으로 100년을 책임지고 2000년대를 살아가는 아이들이 이미 우리 곁에 와 있음을 느끼는 좋은 사람들이 '21세기의 보육'을 만드는 일을 위해 하나 둘씩 모여야 할 시점이 아닌가 생각해본다.

교육제언

현장교육의 새로운 대안을 제안하며

김연숙 · 본회 회원, 전 씹씩이어린이집 교사

전 씹씩이어린이집 김연숙선생님이 휴직에 들어가며 우리 교육활동에 대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현장교육의 새로운 대안을 회원 여러분에게 제안하며 내용과 방식을 3-4차례에 걸쳐 연재하기로 하였습니다.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목 차

1. 들어가는 말
2. 공동체 지향을 위한 소그룹 활동과 대그룹 활동
3. 생활주제와 연관주제 활용
4. 관점을 달리한 주제 접근
5. 과도기적 교육계획안 사례 - 영아 2세반

1. 들어가는 말

지고지난한 세월을 함께 지내오면서 우리는 교사로서의 서로의 의지와 힘을 항상 확인해왔었다. 술자리 한 번 같이하지 않았어도 우리의 삶에 대한 태도는 닮은 점이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고, 아이들에 대한 생각 또한 우리가 한 길을 가는 사람들임을 확인시켜 주었다. 우리 교사들은 아이들에게 진정 소중한 것이 무엇이고,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아이들을 밝고 건강하게 지켜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관해 끊임없이 고민해왔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의 현실은 언제나 새로운 이론에 민감했고, 새로운 것들을 배우기에 급급했기에 아이들과 지낸 그 오랜 세월을 우리 것으로 담아낼 그릇은 아무데도 없었다. 보육교사회라는 것 자체가 우리의 목소리를 담은 그릇은 아닐 것이다. 아니 적어도 그릇이 마련되었다 할지라도 담은 음식이 아직 조리가 되지 않았다고나 해야 할까.

다양한 이론과 형식들을 배워나가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나는 이제 건강하고 고민 많은 우리 교사들이 교육에 대한 열정들을 하나 하나 끄집어내어 시도하고 모양을 갖추어 진정 올바른 교육이 아이들에게, 부모들에게, 시설들에게, 그리고 사회에까지 뿌리 내릴 수 있도록 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한다. 교사들이 갖고 있는 작은 시도와 결과물들을 이제는 하나 하나 꺼내 보일 수 있는 용기를 보이자!

오래된 시설이나 활동경력이 긴 교사들에게는 고유의 독특한 분위기가 있다. 그것은 그들 나름의 교육관에서 나온 개인적인 성격이나 태도일 수도 있겠고, 실제 다른 시설이나 교사들과는 다른 어떤 다양한 방식과 일과 구성 또는 작은 프로그램의 차이일 수도 있겠다. 어쨌거나 우리가 그냥 무심코 지나치는 우리의 아동관과 그에 따른 교육방식, 프로그램들이 사실은 우리의 지난 세월을 담아낸 것들이며, 그러한 것들을 체계화시키고 또는 다른 형태로 시도, 전환할 때는 그 어떤 이론 못지 않은 살아있는 현장교육이 만들어진다고 생각한다.

교육이라는 것은 시대에 따라서, 아동에 따라서 또 교사에 따라서 다양한 것들이 시도되고, 검증될 때 더욱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외부의 이론이나 형식을 도입해 교육계획안이라는 틀 속에 짜 넣는 데에 급급했다.

교육계획안. 어떤 시설에서든지 연간, 월간, 주간, 또는 일일 계획을 짤다.

교육계획안의 내용을 보자. 나는 나의 교육계획안을 보면서 왠지 답답하고, '이건 아닌데...' 하는 느낌을 받은 적이 많다. 과연 우리가 아이들에게 가르치고자 했던 것이 바로 그 교육계획안에 들어있는 그것들이었나? 물론 아이들에게 주고자 했던 많은 것들은 교육계획안 외에 교사들의 재량과 의지에 따라 아이들에게 녹아들어갈 수 있게 해 왔다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나 자신을 돌아볼 때 교육계획안 외의 가치들을 아이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어떤 노력과 시도를 했었나 반성이 된다.

왜 아이들이 흥미있어 하고, 또 배워야 할 것은 기존의 교육계획안 주제들로 한정되어야만 할까?

교사들은 과연 다양한 접근을 시도해보았는가?

우리가 진정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들은 무엇이었나?

현재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교육계획안의 형식과 내용, 과연 문제는 없는가?

교육계획안의 주제는 과연 주제로서 충분한 가치가 있는 것인가?

많은 가치와 경험들을 충분히 제공할 수 없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다양한 연구와 시도를 하는 데 있어 교육계획안 형식이 주는 한계는 없었나?

여러 가지의 문제점과 평가 속에서 우리의 교육활동들을 되돌아보고, 보다 더 큰 것들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제안에 대해 완벽한 대안을 그 어떤 교사들에게도 요구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 단지 아동교육을 주도하고 있는 유치원과의 차별성들을 우리의 장점으로 이용해 교사들에 의한 현장교육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시도를 시작하자는 것이다. 그리고 그 작은 시도들을 과감하게 드러내자고 말하고 싶다. 아울러 앞서 지적한 문제점들을 중심으로 대안을 찾아보고 구체적인 내용과 교육 방식, 프로그램, 교육계획안 형식 등에 관해서 몇차례에 걸쳐 연재하려고 하니 교사들의 이해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더불어 사는 공동체는 아이들의 올바른 가치관 형성과 사회성 발달에 기초할 때에만 비로소 교육적 가치를 가질 수 있다. 우리 교사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올바른 가치관 형성과 사회성 발달, 공동체 의식들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교육방식과 프로그램들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2. 공동체 지향을 위한 소그룹 활동과 대그룹 활동

공동체=전체주의??

공동체를 논하기 위해서는 공동체란 무엇인가 하는 정의 내리기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집단생활 자체가 공동체는 아닐 것이며, 집단을 위해 개인을 희생하는 것이 공동체는 더더욱 아닐 것이다. 먼저 각 시설에서 아이들의 시각으로 집단생활과 공동체성이라는 것을 재조명해 볼 필요가 있다. 한 예로 우리 어린이집에 다니던 7살짜리 여자 아이가 어느날 학원에서 가는 소풍을 마치고 얼굴이 축상이 되어 어린이집으로 돌아왔다. 소풍은 재미있었느냐는 교사의 질문에 아이는 금방 울 것 같은 얼굴로 더듬더듬 대답을 했다. "이렇게... 죽- 졸아서 앉았다 일어났다, 앞으로 가고... 앉아서 밥 먹고 왔어요." 더 물어보지 않아도 상황은 불 보듯 뻔했다. 물론 이 아이는 유난히 규칙으로부터 자유로운 경향이 있는 아이이긴 했지만 이와 비슷한 경우를 학원이나 유치원의 행렬에서 많이 보아왔다. 같은 경우 만일 우리 시설들이었다면 어땠을까? 아마도 지나치게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아이들이 지루하지 않게 수다떨고 장난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졌을 것이다. 다소 단적인 예이긴 하지만 이 경우를 비교해볼 때 우리 교사들이 생각하는 규칙이라는 것은 이렇게 정의될 수 있다. '다른 사람에게 큰 피해 주지 않고 규칙으로 인해 억압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질서.'

공동체 의식은 다양한 긍정적인 경험으로부터 출발

공동체라는 것을 아이들에게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는 전제되어야 할 경험과 조건이 필요하다고 본다. 우리는 필요에 따라서 아이들에게 줄서기를 가르친다. 그러나 줄서기를 처음 경험하는 아이들에게는 줄을 섰을 때의 편리함보다 불편함이나 불만족을 더 많이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이다. 앞에 서고 싶은 욕구, 새치기, 뒤에서 밀침, 양보 등등. 만일 하루 생활 중에 이런 비슷한 경험들이 공동체의 긍정성을 경험하는 것보다 더 먼저, 더 많이 제공된다면 어떻게 될까?

아이들에게 사회적 가치, 규범들을 가르치기 전에 아이들의 다양한 경험들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양보라는 것을 주제로 아이들의 경험을 도모한 적이 있는가? 아이들은 양보가 무엇인지, 양보를 받았을 때 혹은 양보했을 때 느낌이 어땠는지 경험한 적이 있는가? 아이들이 친한 친구한테 양보하는 경우가 더 많지는 않은가? 친하지 않은 친구 또는 힘이 우월한 형이나 누나에게 양보를 하는 경우는 있는가?

아이들 입장에서의 세심한 관심과 관찰은 프로그램을 짜는데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 아이들의 관심과 이해를 불러일으키기 위해서는 아이들의 시각에서 모든 사회적 가치들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

아이들은 어떻게 공동체를 경험하는가?

나는 공동체성을 기를 수 있는 전제 조건은 집단생활의 즐거움에서부터 온다고 생각한다. 유치원 교육과정을 볼 때 대부분 학기 초에 규율과 질서를 가르친다. 친구의 소중함이나 집단생활의 즐거움을 느껴 보기도 전에 규율과 질서를 강요받아야 한다면 올바른 공동체성 형성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길들여진 집단생활에서의 질서의식은 오히려 공동체성을 방해하는 결과가 생기지 않을까 우려된다. 학원에서는 교사의 지시에 매우 잘 따르고 집단생활에 능숙한 아이들이 원 밖에서는 전혀 다른 태도, 오히려 질서를 파괴하려는 태도를 보이는 경우를 종종 보았다.

진정한 공동체는 서로의 소중함을 알고 함께 생활하는 즐거움을 아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잘못된 그룹지도가 공동체성에 미치는 영향

교사 대 아동 비율이 높은 시설에서는 개별적인 활동들을 많이 제공한다. 특히 유치원 교실환경은 연관 주제에 따른 다양한 영역의 활동들을 자율적으로 경험하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개인화되는 교육활동들을 보완하고자 흔히 게임이나 집단활동을 도입하는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몇가지를 지적해 보고 싶다. 게임을 계획할 때는 철저히 효과나 영향들을 예측하고 준비해야 한다. 교사의 의도와 상관없이 아이들은 게임을 통해 승부욕이나 지나친 경쟁심, 상대방에 대한 원망, 같은 팀원에 대한 질타 등을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이다.

대집단 활동을 할 때도, 반드시 대집단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집단으로 활동해야만 더 재미를 느낄 수 있는 활동을 계획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이들이 이 활동을 하면서 '나는 혼자 하고 싶은데...' 또는 '내가 더 많이 하고 싶은데 기다리는 건 너무 지겨워'라는 생각들로 인해 활동에 흥미를 느끼지 못한다면 한 번쯤 점점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닐까? 물론 부작용 없이 효과적으로 대집단 활동을 한 사례가 있다면 사례들을 모으고 정리해서 다른 교사들과 함께 나누는 자세가 꼭 필요하겠다.

소그룹 활동과 대그룹 활동의 제안 근거

집단에 잘 어울리지 못하는 아이들에게는 대그룹 활동보다 소그룹 활동이 더 적합할 것이다. 소집단은 아이가 집중력을 높이기에도 적절하며 상호작용 측면에서도 더 친밀감을 느낄 수 있는 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다. 또한 다양한 아이들과의 접촉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집단 구성을 잘 조절해 주면 아이들은 색다른 친밀감이나 흥미를 느낄 수가 있다. 우리가 교사 수련회를 할 때 많은 교사들이 자기 지역끼리의 시간을 갖고 싶어함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지역을 섞어 놓을 수밖에 없는 것과 같은 이치다. 그러나 다른 지역과 섞여서 재미도 없는 토론을 같이 한다고 친해지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아이들을 소집단으로 구성했을 때에는 더 재미있고 흥미로운 활동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우리가 어렸을 적에는 혼자서 할 수 있는 놀이는 거의 없었다. 미우니 고우니 해도 놀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필요했고 싸움을 하더라도 혼자 노는 것보다는 같이 노는 것이 재미있다는 것을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느낄 수 있었다. 내가 고무줄을 하기 위해 한 친구는 더 있어야 하고, 둘이 있으면 고무줄을 묶어놓지 않아도 되니 좋고, 셋이 있으면 둘씩 편을 팔 수 있어서 좋고, 그보다 더 많으면 두 줄 고무줄, 또 세 줄 고무줄... 아무튼 사람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요즘 아이들은 혼자서도 얼마든지 놀 수 있고 때로는 여럿이면 방해가 되기 때문에 숫자를 제한할 수밖에 없는 놀이들에 무한정 노출되어 있다. 이러한 현실을 정확히 진단한다면 우리 아이들에게 제공되어야 하는 경험들이란 어떤 것인지, 진정한 공동체란 어디에서부터 오는지 교사들이라면 그 대안까지도 피부로 느낄 수 있을 것이다.

〈활동 사례〉

1. 게임 방식 전환의 예

■ 활동명 : 의자에 앉기

■ 문제점 :

지는 것으로 인해 남을 원망하거나 상대적 열등감을 느끼게 할 소지가 많은 게임은 유아의 연령에는 맞지 않다. 제한된 수의 의자를 놓고 달려가서 의자를 차지하는 게임은 교육적 효과가 결코 좋지 못하다. 더욱이 열 명이 한 개의 의자를 놓고 경쟁해 단 한 명만 의자에 앉을 수 있는 것보다, 아홉 개의 의자에 앉고 단 한 명만 의자에 앉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 있어 전자보다 후자가 훨씬 좌절감이 크기 때문에 이런 류의 게임은 피하는 것이 좋겠다.

■ 주의사항 :

게임의 결과로 인해 어떤 잊점이 주어지면 좋지 않다. 그것이 아주 작은 것이라 하더라도, 결과는 단지 결과에 불과하며 이후의 상황과는 아무 관계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물론 교사의 정확한 판단과 대처 능력에 따라 어떤 게임도 승부욕이나 지나친 경쟁심 없이 또 좌절감 없이 진행될 수도 있다. 게임에 지거나 이기는 경험 자체가 나쁜 것은 물론 아니다. 그와 같은 경험을 올바르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지도가 반드시 전제되어야만 하고 승리와 패배의 경험을 골고루 접하면서 양 쪽을 다 경험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교사의 역할이라고 하겠다. 혹시 내 아이들 중에 주로 이기는 경험을 많이 하거나 혹은 지는 경험을 많이 한 아이가 있다면 교사가 제공한 게임의 종류와 다양성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더 자세한 설명은 <대표 게임>에서 하겠다.

■ 방식전환 : 일대일 의자게임

아이들 숫자만큼의 의자를 원형으로 놓고 원 주위를 돌다가 교사의 지시에 따라 아무 의자에 앉는 것이다. 교사의 지시어는 세가지 정도로 하되 - ① 앉아 ② 모여 ③ 멈춰 - 지시 방식은 말

이 될 수도 있고 풋말 표시가 될 수도 있다. 말을 사용할 경우엔 아이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진행되기 때문에 교사가 소리를 질러 진행하는 것보다 입모양을 통해서 알아들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집중력을 높이고 좋다.

의자는 아이들 각자가 하나씩 가져오도록 하는 것이 좋고, 그로 인해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자기가 처음 앉았던 의자를 고집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교사는 사전 설명을 잘 해주어야 하겠다. 정리도 역시 각자 하나씩.

신나게 노래를 부르며 의자 주변을 돌다가 지시어에 집중해 순간적으로 의자에 앉거나 중앙에 모이거나 그대로 멈춰라를 해야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많을수록 더 재미있다. 한 가지 재미있는 현상은 아이들이 의자를 이용해 재미있는 놀이를 하였기 때문에 의자에 대한 애착(?) 같은 것이 생겨서 게임을 마친 다음에는 서로 의자를 들고 가려고 한다는 것이다.

선생님들도 한 번 해보세요!

■ 기타 참고사항:

의자가 없다면 블록으로 사각형을 만들어 사용해도 좋다. 그만큼의 블록이 없다면 종이로 방석을 만들어 사용해도 좋다.



2. 소집단 활동의 예

■ 활동명 : 대표 게임

■ 활동의 가치 :

소집단에 속한 아이들이 각자 자기의 장점을 이용해 게임에 골고루 참여하는 방식으로, 협의 과정을 통해 서로에 대한 관심이 생길 수 있으며 원활한 협의가 활동에 도움을 준다는 것을 느끼게 해 준다.

■ 진행 방법 :

3-5명의 소집단을 구성하고 집단별로 대표 게임을 제시한다. 구성원을 3명으로 했을 경우에는 총 3개의 게임 항목을 만들어 아이들에게 미리 알려준다. 게임의 종류는 아이들의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선정하고 각 게임에 적합한 대표선수를 선발하도록 한다. 협의가 잘 이루어져 선수를 선발한 그룹은 게임을 먼저 시작할 수 있다. 선출의 변을 집단별로 들어볼 수도 있다.

게임의 종류는 다음의 정도면 좋겠다.

엉덩이 싸움(힘이 센 사람) / 눈싸움
(무표정한 사람) / 춤대결(춤 잘 추는 사람)

□ 주의사항 :

어떤 사람을 뽑으라고 말해주지 않아도 아이들이 서로의 장점을 잘 알기 때문에 알맞은 친구를 선정한다. 단, 세가지를 한꺼번에 뽑으라고 해야 각자 하나씩 할 수 있다는 안도감을 가질 수가 있다. 소집단을 구성할 때 아이들이 골고루 배치되도록 배려해야 할 것이고 또 혼자 다 하려는 아이가 있는 그룹은 참여가 늦어지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포기하고 분담하게 된다. 집단에의 참여가 소극적인 아이가 있다면 그 아이가 잘할 수 있는 종목을 선정할 필요가 있다. 운동능력과 무관한 종목이라든지 연령에 무관한 종목 같은 것을 개발하면 더욱 좋겠다.



3 대집단 활동의 예

□ 활동명 : 같은 소리 찾기

□ 활동의 가치 :

전체가 동시에 활동에 참여할 수 있고 승패와 무관하기 때문에 한 명의 이탈자도 생기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집단 참여로 인해 즐거움을 줄 수 있는 대표적인 활동이라고 할 수 있겠다. 또 평소 친하지 않은 아이들과도 친밀감을 느낄 수 있는 놀이라 할 수 있겠다.

□ 진행방법 :

종이폭지에 몇 가지 종류의 그림 스티카를 붙여 놓는다. 그림은 소리가 있는 것으로 하고 집단의 숫자를 고려하여 3개 정도의 집단에 각 집단별로 3-5명의 인원이 되게 하는 것이 적절하다. 물론 상황에 따라 조절이 가능. (스티카 그림의 예-자동차, 동물, 종, 시계 같은 소리를 낼 수 있는 것. 라디오, 인형-x)

종이폭지를 동시에 뿌리면 각자 하나씩 주워서 말하거나 보여주지 않고 그림의 소리만 내면서 돌아다니다가 같은 소리를 내는 사람을 만나면 짝을 이룬다. 이렇게 해서 정해진 숫자가 다 모이게 되면 우승이다. 이 놀이의 경우에는 승패가 있어도 무방하다. 왜냐하면 나의 잘못이 드러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에 대한 원망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또 늦어짐으로 인해 어떤 불안이나 불리함이 오는 것이 아니라 참여하고 있는 자체를 재미로 느끼고 결국에는 짝을

만날 수가 있기 때문이다. 끝까지 짝을 못 만나는 집단을 보면 대개 다른 사람의 소리를 듣지 않고 자기 소리만 크게 내거나 적극적으로 자기 소리를 표현하지 않는 경우다. 아이들의 경험을 나누다 보면 쉽게 찾는 방법이 자연 터득될 수 있다. 몇 번이고 반복하면서 집단 구성을 다양하게!



□ 주의사항 :

활동에 앞서 모델링을 해 주

는 것이 좋다. 아이들이 상황을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말을 해버리거나 교사에게 와서 찾아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미리 '모의 게임'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 인원수가 많을 경우에는 너무너무 소란스럽기 때문에 짝을 찾는 것이 어려워지므로 따라서 소리를 내지 않는 그림을 첨가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예 - 금붕어)

이상으로 공동체성을 높일 수 있는 활동의 예를 세가지 제시하였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재미있어 해야 한다는 것이고 활동을 마친 후의 반응을 관찰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활동에 만족스러웠다면 아이들끼리의 분위기가 약간 다르다. 놀이 자체의 흥미도 흥미지만 서로 부대끼고 상호작용하는 그 분위기를 아이들도 즐긴다. 친구의 소중함, 집단의 소중함은 여기에서부터 시작된다. 친밀한 분위기가 형성되고 나면 게임이나 놀이가 아닌 다른 형태의 다양한 활동들도 시도할 수가 있다. 그러나 소개는 여기서 마치고 앞으로 여러 선생님들의 많은 시도와 성과들에 대한 소개가 활발히 이어졌으면 하는 바램이다.

광 고

한국보육교사회는 김연숙선생님의 제안에 동감을 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고민하며 해왔던 교육, 이 건 아닌데 하며 창의적으로 개발하여 진행한 내용. 그리고 우리의 교육철학이 담긴 프로그램개발은 개인 혼자만의 연구로는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회로서는 아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연구를 하며 개발하는데 관심 있고 한번 해보고 싶으신 분은 뭉쳐서 시도해 볼까 어떨런지요. 가능한 소모임으로 만들어 진행할 예정이니 본회 교육부장님께 연락주시지요. 물론 김연숙선생님이 함께 하시고요. 연락기다립니다.

보육정책

유아교육법안에 대한 검토

김정희 · 공동육아연구원 부원장

'유아교육법(안)' 제정에 대해 찬성과 반대의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본지에서는 2회에 걸쳐 본회의와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영유아보육학회 표갑수회장의 글을 실은 바 있습니다. 이번호에는 공동육아연구원 김정희부원장님께서 부모의 입장에서 '유아교육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신 글을 실습니다.

글을 주신 김정희부원장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I. 머리말

최근 유아교육 관련 전문가와 종사자들은 사교육비 부담의 해소, 유아교육의 질적 향상이라는 명분으로 유아교육법안을 통과시키려 애를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 명분에 동의하지 않는 이는 없을 것이다. 하나의 사회문제가 있을 때 대안을 법의 제정과 개정에서 찾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낯설은 풍경은 아니다. 그러나 법의 제정이나 개정이 만병통치약이 아님은 우리의 경험을 통해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우리 사회의 많은 부조리와 모순이 법이 부족해서가 아님을 잘 알고 있지 않은가? 유아보육과 관련해서도 이는 마찬가지이다. 우리 사회의 유아보육(보호와 교육, educare) 제도와 시설이 많은 문제점, 따라서 개선점을 안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것을 새로운 법안의 제정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은 안이한 발상으로 보인다. 부모 입장에서 살펴 본 유아교육법안의 문제점들을 하나씩 짚어보자면 다음과 같다.

II. 유아교육법안의 검토

첫째, 유아학교의 시설·설비 기준과 관련된 교육부의 지침에서 질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음을 엿볼 수 없다. 법안의 제9조(유아학교의 시설 기준 등)는 유아학교의 시설·설비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한다고 하였다. 법이 제정되지 않았으니 시설·설비 기준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의 정책 지침을 볼 때 이 기준은 기존의 학원들이 요식 행위를 거쳐 유아학교로 인가

받을 수 있는 길을 터놓는 쪽으로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유아교육신문은 다음과 같이 보도하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달 16일 시달한 '98학년도 유치원 교육 운영 계획에서 5학급 이상 사립 유치원의 학교 법인화를 적극 권장토록 지시했다...유아교육 행위를 하는 사설 교습소 등 학원에 대해서도 강력한 단속 및 행정조치를 강구하되 유치원 시설 설비기준에 적합한 시설은 사립유치원으로 양성하도록 권장했다...3층 이상만 사용하는 유치원은 원아의 안전사고에 유의하여 신규 허가를 가급적 억제하도록 했다. 또 기존의 3층 이상만 사용하는 유치원에 대해서도 원아의 안전사고 예방대책을 강구하도록 지도케 했다"(유아교육신문 1998. 3. 16).

한 마디로 마당, 놀이터도 없는 상가빌딩 내 '관인 유치원'의 간판을 내건 학원이나 유치원들의 유아학교로의 전환을 사실상 용인한다고 보이는 정책 지침이다. 공동육아의 관점에서 질 높은 보육과 교육을 가능하게 하는 잣대 중의 하나는 아이들이 장난치고 놀며 뛰어갈 수 있는 흙, 모래, 놀이터, 마당이 있느냐는 것이다. 마당없는 유아학교가 어떻게 보육과 교육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가?

둘째, 교육과정에 대한 규정에서도 보육과 교육의 질향상을 기대할 수 없다. 법안의 20조 1항은 "유아학교는 교육부장관이 정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20조 1항), "...시·도 교육감이 인정한 다양한 특별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20조 3항)라고 못박고 있다. 중·고등학교에서 조차 검정고시 교과서 제도는 획일적 교육의 원인으로 폐지되어야 한다는 소리가 높다. 법안의 20조는 한마디로 획일적인 제도교육의 관점을 그대로 유아교육에 적용하려는 발상으로 보인다. 이미 우리나라는 유아보육시설과 교육시설의 보육과 교육에서 획일성은 유아보육과 교육 관련 전문가와 종사자들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는 수준에 와있다. 법안의 교육과정에 대한 규정은 이에 대한 문제의식 없이 이 모순을 확대/합법화 해주는 결과를 빚을 뿐이다. 교육과정의 궁극적 책임은 교사 개개인에 있다. 문제는 교사의 교육력을 어떻게 담보해낼 것인가이다. 법안은 이에 대한 고민없이 자본이 통제하기 쉬운 평준화된 대량 노동자를 양산해낸, 19세기적 교육 발상을 그대로 답고 있어 실망스럽기 그지 없다.

셋째로 위계적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있어 개방적, 열린 보육을 지향하기 어렵다. 아동이 많아 야 몇 십 명에서 백 명 (사실 3, 40십명만 넘어서도 유아보육과 교육의 질을 담보해낼 수 없다) 정도에 불과할 유아학교에 교장, 교감이란 학교 관리 체계(14조 1항)가 들어오는 것은 방만하고 위계적인 관리체계를 의미한다. 더군다나 계약제 교사의 규정(14조 2항)은 교장에 의해 악용될 소지가 많다. 오히려 보육의 질은 교장을 계약직으로 함으로써 보다 더 향상될 수 있으리라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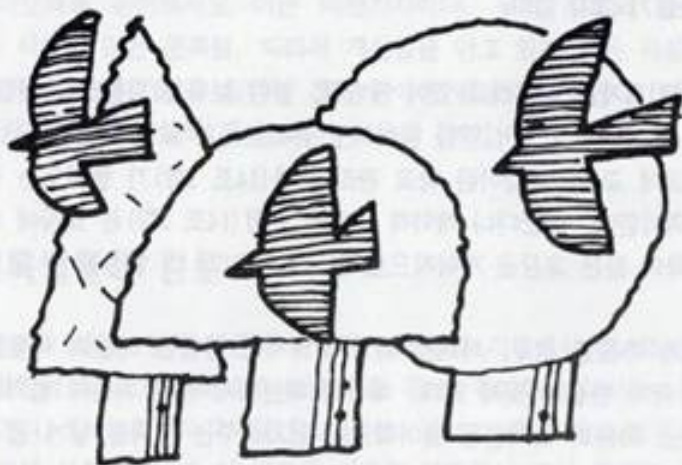
넷째로 유아학교가 추진될 경우,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예산과 새로운 조직들이 요구되는데 이는 IMF의 국가 현실과 맞지 않다.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가운데 법의 통과를 요식행위를 통해, 적당히 군소 학원과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인가해주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는 우려를

급할 수 없다. 또한 여전히 교장은 수업료와 기타 비용을 부모에게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어 (26조) 무엇이 유아공교육체제 수립인가조차 의문이 든다.

다섯째로 종일보육의 역사가 거의 없는 유치원을 중심으로 종일 보육을 일원화한다는 것은 부모 입장에서는 신뢰할 수 없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애초 수요의 성격이 다르다. 유치원은 주로 전업모 자녀들의 오전 유아교육을 담당해 왔고 어린이집은 맞벌이 자녀의 종일보육을 담당해 왔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나 보육과 교육 내용의 질적 향상을 꾀해야 하는 것은 마찬가지로 안고 있는 과제이나, 종일보육의 노하우가 쌓여 있지 않은 유치원이 종일보육을 다 가져감을 합법화하고 있는 법안은 타당성을 결여하고 있다.

III. 맺는 말

결론적으로 유아교육법안은 보육과 교육에 대한 관점에서 21세기를 지향하는 진보적 관점, 아동중심적 관점을 담지하고 있지 못하며 19세기적 교육관에 그대로 머물러 있다. 한편 경제적 측면에서는 IMF하의 현실과 맞지 않다. 마지막으로 종일보육과 교육의 역사가 거의 없는 유치원이 학교 인가를 받아 종일보육과 교육을 하겠다는 것에 신뢰가치 않는다. 맞벌이 부모가 원하는 것은 학교가 아니라 아이가 자기 집처럼 편안히 느끼며 자랄 수 있는 또 하나의 집이다. 기존의 어린이집이 아이들에게 이같은 편안한 집이 되어주었는가는 반드시 반성해 보아야 할 과제이나, 그 해결이 학교로 가는 길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여름연수

우리 아이들의 삶을 더욱 더 풍요롭고 창의적으로 만드는 주게스토페디 통합예술교육

서은희 · 본회 부회장

‘주게스토페디’. 이 단어를 외우는데 적잖은 시간이 부여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여름 연수 프로그램으로 준비하게 된 이유는 현장에서 아이들과 생활하면서 늘 무언가 부족하고, 이젠 아닌데 했던 그 무엇을 이 주게스토페디 통합예술교육이 조금이나마 해소해줄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들었기 때문이다.

주게스토페디 교수법은 불가리아의 교육학자인 게오르기 로자노프가 1960년대에 발표한 교육 이론으로, 사회와 주위의 부정적 압시를 풀어주면 사람의 잠재력은 무한히 발전할 수 있다고 본 이론이다. 이 이론에 근거한 우리나라 주게스토페디 통합예술교육은 교사의 긍정적 압시가 아이들에게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상호 만남과 교감을 중시한다. 그래서 음악교육도 아이들과 교사의 의사소통 도구인 언어, 모국어에서부터 시작한다. 주게스토페디 음악교육에서 전래동요, 전래놀이를 중요시 여기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유럽의 언어는 악센트가 특색이 있는 반면, 우리의 언어는 장단의 특색이 있다. 또 어순도 다르다. 우리 언어에는 존대말과 겸양어가 있고, 서구와는 비교가 안되는 의성어, 의태어들이 많다. 한국인의 신체리듬과 언어구조에 맞는 우리 음악으로 우리 아이들을 가르칠 때, 몸과 마음으로 말과 노래를 하나로 받아들여 살아있는 음악으로 표현하도록 도와줄 수 있는 것이다.

주게스토페디 통합예술교육의 진행과정을 이해를 돕기 위해 도식적으로 설명해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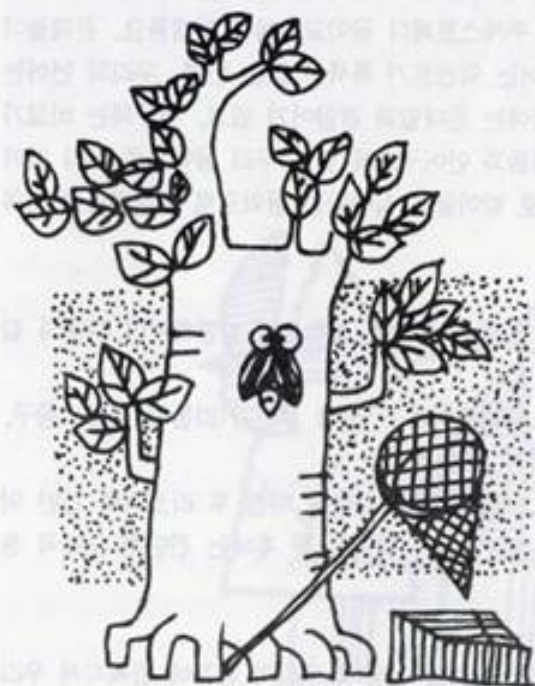
- 말 배우기 - 이야기 듣고 상상하기 - 일어나 움직이기 - 노래 부르기(리듬악기-북, 장구, 주변 사물을 이용한 악기-연주) - 그림으로 표현하기, 조형놀이
- 단계별 과정이 끝날 때 작은 음악회를 열어, 일정단계의 과정을 마친 후 리코더와 건반 악기 교육 등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다. 또 노래가 자기 것으로 된 후에는 간단한 노래극 등으로 꾸미기도 한다.

새로운 교육법을 접하게 될 때마다 드는 생각은, 이것을 어떻게 우리의 현장에 접목시켜 우리

의 것을 만들어 낼 것인가 하는 것이다. 이번 연수를 준비하면서 내내 갖게 되는 생각은 연수에 참가하게 될 많은 보육교사들이 하나의 새로운 유형으로 경향으로 이번 연수 프로그램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이였다. 유형은 그 시기만 지나면 사라져 버린다. 주게스토페디 통합예술교육이라는 이 교육방법을 계기로 우리의 보육현장에 정말 알맞은 예술교육의 내용들이 우리 보육교사들의 손으로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보육교사 여러분! 우리 여름연수 끝나고, 통합예술교육에 대해 진지하게 공부해봅시다. 머리를 맞대고 진지하게 고민하고 실천하다보면 무언가 결실을 맺을 수 있지 않을까요? 생각이 있으신 회원께서는 연수 끝나고 사무국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7월25일(서울·경기), 8월1일(전주·광주), 8월9일(대구·부산), 뜨거운 여름을 서늘하게 만들 '바른 보육의 열정'을 가지고 만나 뵙기를 기대합니다.



■ 한국보육교사회 여름연수 안내

주게스토페디 - 암시를 통해 아이들의 잠재능력을 일깨우는 통합예술교육

안녕하세요? 예년보다 일찍 시작된 어썬 햇살의 따가움이 우리의 온갖 마음을 치치고 환하게 만드는 7월입니다. 보육현장에서 아이들과 구슬땀을 흘리고 계신 동료교사들께 시원한 마음의 바닷물을 보내드립니다. 한국보육교사회는 어썬연수 프로그램으로 통합예술교육을 추구하는 '주게스토페디 음악음악'을 준비했습니다. 뜨거운 여름을 시원하게 만들 보육의 열정을 한데 모으는 자리에 교사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주게스토페디 통합예술교육이란?

- 암시(주게스토)와 교육(페디)의 합성어인 '주게스토페디 교수법'은 60년대 불가리아 언어학자 게오르기노지노프가 창안한 교육법입니다. '암시'를 적절히 활용해 인간의 잠재능력을 일깨우는 이 교육법은 일방적으로 지식을 주입하는 것이 아니라 무의식의 세계를 자극해 스스로 정보에 접근하도록 유도합니다. 원래 언어교육에 적용되었던 이 교수법을 음악교육에 응용한 것이 바로 주게스토페디 통합예술교육입니다.
- 그 나라 언어의 흐름이 살아있고, 문화, 종교, 역사의 흐름이 담겨있는 민속음악, 고전음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합니다. 언어와 음악, 미술과 음악, 연극과 음악, 춤과 음악, 놀이와 음악이 잘 어우러진 전래음악에서 시작하여 그 특성에 맞게 통합적인 예술교육을 실시합니다.

강사: 박성순(주게스토페디 음악원장)

이화여대 성악과 졸업 / 독일 뮌스터, 도르트문트 음대에서 파이프로간과 합창지휘 전공 / 성악, 피아노, 리코더 전공 / 한국인으로서는 최초로 주게스토페디 강사자격증 취득

연수프로그램 : '여름나들이'를 주제로 한 유아음악교육의 통합적 접근

- 1강 유아음악의 통합적 접근 I (전래동요, 세계동요의 이론 및 실제)
- 2강 통합적 접근으로서의 유아미술활동 I (조형, 상상화)
- 3강 유아음악의 통합적 접근 II (즉흥연주)
- 4강 통합적 접근으로서의 유아미술활동 II (민화, 만화)

준비물: 리코더, 실로폰, 리듬악기, 한지 1장, 스케치북, 크레파스, 붓글씨 붓, 밀가루반죽, 4B연필, 지우개

권역별 연수 안내

지역	수도권	전북·광주권역	대구·부산권
날짜	1998년 7월 25일(토)	1998년 8월 1일(토)	1998년 8월 9일(일)
시간	1부 10:00-15:00 / 2부 16:00-21:00	10:30-18:00	10:30-18:00
접수	한국보육교사회 02-275-8505, 268-3954	전북보육교사회 053)557-0419 광주보육교사회 062)222-6740	대구보육교사회(준) 053)557-0419 부산보육교사회 051)816-4383
참가비 입금계좌	총액 2만5천원 / 반납 1만5천원 국민은행 068-21-0479-041 정희연	2만원 광주은행 001-121-624779 김영균	2만원 부산은행 032-12-036702-7 박찬주
장소	송실대 사회봉사관 백미당 강당 지하철 1호선 노랑선역 하차 143번 버스	전남대 가정대학 강의실 100호 광주역에서 283번 버스 북구청앞 하차 타미널에서 386번 버스 전남대후문 하차	부산 일하는 여성의 집 강당 동래진철역 하차

통합교육

성공적 통합을 위하여

윤선아 · 서울대병원 소아정신과 특수교육 책임교사

이번호로 '통합교육' 연재는 마감이 됩니다. 그동안 기사를 써주신 윤선아선생님께 '우리네 아이들' 모든 독자를 대신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 보육현장에서 통합보육을 하면서 궁금한 점이 있거나 아동상태에 대해 자문을 구하고 싶으신 분은 본지로 연락주십시오. 윤선아선생님께 서 답변을 주실 수 있습니다.

윤선아님의 글은 다음의 순서로 연재되었습니다.

1. 통합은 왜 해야 하는가?
2. 통합교육의 효과
3. 성공적 통합에 필요한 요소들
4. 장애아동의 선발/진단/배치
5. 통합보육 활성화 정책
6. 통합보육 사례
7. 성공적 통합을 위하여

지난호에서 우리는 장애아동을 통합보육하는 어린이집의 사례를 살펴보았다. 현재 장애아동의 통합에 관한 교육현장은, 특히 학령전 통합교육의 경우 이제 출발선상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통합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내세우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도 사실상 같은 공간만 활용하고 있을 뿐이지, 통합을 위한 준비나 계획을 실행하는 곳은 참으로 찾기 힘들다. 또한 장애아동의 입학

을 허락했어도, 장애아동이 교육받을 권리를 책임있게 인정하고, 장애아동을 위한 교육방법이나 교육계획을 보완하는 것은 현장에선 더욱 어려워하는 것 같다.

그래서 장애아동의 부모들은 장애아동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입학시킬 때 이러한 점들을 고려한다. 첫째, 원장선생님의 장애아동에 대한 가치관과 개인적 성품, 둘째, 원내 유아교육 교사들의 장애아동에 대한 성공적 교육경험, 셋째, 담임교사의 장애아동에 대한 가치관과 개인적 성품, 넷째, 일반 아동 부모들의 협조 가능성, 다섯째, 유치원 프로그램이나 특성이 해당 장애아동의 언어/인지/사회성 등의 발달수준이나 행동 특성에 적합한가 등이다. 장애아동의 부모들은 원하는 유치원과 물리적 거리도 고려하지만, 위 열거한 조건이 만족되면 대부분 거주지를 옮겨서라도 등록시키려는 열의를 보인다. 더욱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내에 1) 특수교사가 있거나 2) 특수아동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이 있거나 3) 특수교육기관과 연계되어 있거나 4) 장애아동에 대한 성공적 교육 경험에 있는 경우 등 이상 4가지를 만족시키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은 극히 드물기 때문에, 장애아동의 부모들은 1년 이상 대기를 해서라도 이

러한 조건들중 한가지라도 갖춘 유치원에서 자신의 장애아동이 교육받기를 원한다.

이러한 조건들은,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던 『우리네 아이들』에 실린 '성공적 통합에 필요한 요소들'에 비추어봤을 때, 장애아동 부모님들의 통합유치원을 갈망하고 기대하는 욕구를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실제로 유아교육현장에서는 통합에 필요한 요소들을 갖춘 후 통합교육을 위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이나 활동들을 만들어서 운영해가기란 쉽지가 않다. 충신대 유치원에서는 매년 장애아를 위한 '유치원 통합교육 프로그램의 효과'라는 연구 보고서를 통해 보다 성공적인 통합교육을 위한 노력들을 발표하고 있다. '98 연구보고서를 살펴보면, 중재 접근을 시도하는 실험프로그램으로서 세가지를 강조하고 있다. 먼저 단팍을 만들어 주어 일반유아와의 상호작용과 우정이 싹트게 하기, 둘째 직접 의사소통을 가르치기, 셋째 지속적으로 의사소통 및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도록 하기이다. 이 세가지 요인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훈련프로그램을 하루 일과중에 실행하고 있다.

- 1) 단팍 프로그램 2) 또래 교수전략 프로그램 3) 사회극놀이 대본 프로그램 4) 언어지도 프로그램 5) 행동지도 프로그램 6) 발달치료 프로그램 7) 교재 교구 및 활동 프로그램

먼저 단팍 프로그램은 특수교사가 원내에 없거나, 특수교육적인 프로그램에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가장 흔히 사용되는 프로그램이기도 하다. 충신대의 경우 보다 체계적으로 일반유아 훈련의 단계를 갖춘 것이 주모할 만하다. 비슷한 유형의 게임과 놀이를 즐기는 또래친구를 짝지어 주고 자연스럽게 친밀한 놀이환경을 조성해주는 '초기 단계'와 장애유아의 대화를 잘 해석하고 놀이를 인식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단계로서, 비

디오 등의 교재를 활용하고 토의를 통해 장애아동에 대한 인식과 의사소통을 준비시키는 '준비훈련단계', 3단계는 머무르기, 놀이하기, 이야기하기 기술 가르치기, 이때는 교사가 기술 습득을 위해 보상을 해준다. 3단계 이후에도 11단계까지 점차로 교사의 강화나 보상 없이도 단팍 친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때까지의 훈련이 이루어진다. 현장의 일반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오늘의 '도우미'라는 이름으로 실행되는 것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으나, 일반유아에게 좀더 계획되고 적절한 친구 역할을 하도록 하게 하는 것이 차이가 있으며, 이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다. 자칫 단팍 친구나 도우미가 장애아동은 무조건 보호해주고 장애아동에게는 양보해야만 하고 무엇이든 도와주어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장애아동의 발달을 위해서도, 유치원 적응을 위해서도, 또한 무엇보다도 장애아동의 일반아동과의 올바른 우정관계를 통한 사회성 향상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실제로 현장을 참관해보면 이러한 사례는 빈번히 발생된다. 자신들보다 신체면에서 훨씬 더 큰 장애아동을 "엔 참 귀여워요, 아기 같아요."라고 말하거나, "엔 비누질 못해요, 손 씻겨주어야 해요."라고 말하며, 혼자서도 씻을 수 있는 아동을 열심히 씻겨주는 경우도 있다.

필자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관찰을 나가서 개인적으로 느끼게 되는 것은 아이들은 참으로 솔직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성인이 듣기에 참 잔인하고 무서운 말도 서슴없이 할 수 있다. "젠 선생님을 댄날 괴롭혀요. 멍청인가 봐요." "현우야, 재한테 말 시키지 마. 젠 말 못한다 말야. 너 옳아, 바보야. 너도 말 못하게 되고 싶어?" 등의 말을 거침없이 한다. 이때 교사나 일반아동은 장애아동이 들어도 아무 감정을 못 느낄 것이라고 생

각한다. 그러나 이런 말은 꼭 말로서 이해하지 않아도 "나를 무시하거나 소외시키는 분위기"로서 장애아동들에게 상처를 준다.

또한 두번째로 느낀 인상은 '아동들은 성인만큼 인내심이 없다'는 것이다. 놀이대상으로서 장애아동을 선택하여 접근하고 말을 걸게 된 동기가 자의적이든 타의적이든(주로 교사) 장애아동이 반응하지 않거나 게다가 공격행동 등의 부정적 행동까지 보이면, 일반아동들은 정말 쉽게 포기해버리고, 그 아이를 "장애아"로 낙인찍거나 소외시킨다.

이러한 이유로 아무런 중재없이 장애아동과 일반아동이 상호작용을 자연스럽게 유지하고, 우정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을 보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아동들은 참 순진하고 어른들만큼 편견을 고집하지 않는 속성도 있다. 이제 막 "사회성과 도덕성"이 기초를 다져가는 유아/유치원 시기에 장애아동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는 "교사나 성인의 중재"는 일반아동과 장애아동 모두에게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필자는 현장 방문에서 일반아동들이 "선생님, 오는 00가 점심을 맛있게 먹으니까 저도 기분이 좋아요."라고 말하거나, "00야, 너 참 글씨를 잘 읽는구나." 등의 말을 장애아동에게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개인적인 차이도 있겠지만, 그 학급의 담임교사의 장애아동에 대한 인식과 태도가 반영되어 있다고 생각하기도 한다.

일례를 들어보자. 얼마전 한 유치원 방문시, 노란반과 보라반의 게임을 보게 되었다. 두반에는 각각 특수아동이 한명(A, B)씩 있었는데, 노란반에서는 A와 함께 짝지어 게임할 친구를 자발적으로 손을 들게 하였다. 많은 친구들이 손을 들었고, 그중에서 교사는 조금전 율동시간에 A가 너무 좋아서 뛰다가

모르고 발을 밟았던 일반아동을 선택하여, 아까 A가 한 행동이 네가 싫어서 한 행동이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말해주고 게임을 함께 할 것을 권했다. 두 아동은 게임에서는 보라반에게 졌지만 친구들과 담임교사의 박수와 칭찬을 받으면서 좋아했다. 보라반과 노란반은 이어서 머리를 숙이고 공을 아래로 보내기 게임을 하였다. 담임교사들은 두 줄의 보라반의 줄 중간쯤에서 공이 안가고 있는 듯하자 보라반 담임교사는 노란반 담임교사에게 "저기 B가 있어서 그래."라는 말을 하였다. 그러나 필자가 본 B는 열심히 공을 건네준 후였다. 보라반은 졌고, 담임교사의 말을 들었던 보라반 앞쪽의 아이들은 B를 손가락질하며 비난하기 시작했다. 말을 잘 못 알아듣고 표현 못하는 B는 얼굴만 찡그리고 울먹거리며 앉아있었다.

이처럼 담임교사의 태도는 장애아동과 일반 아동에게 커다란 영향력을 갖는다. 1년동안 노란반의 친구들이 A에게 좋은 친구 역할을 유지할 수 있었을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 이러한 태도를 유지시키기 위한 담임교사의 촉진과 배려가 있다면 충분히 가능하였으리라 생각한다.

필자는 장애아동이 일반아동과의 바람직한 우정관계를 유치원에서 성공적으로 형성하였다면, 장애아동의 유치원 통합의 효과는 100% 완성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을 만큼 중요하고 어렵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보다 계획된 프로그램이 보다 성공적인 또래관계를 형성시키고 유지시킬 수 있음은 분명하다. '어떻게 장애아동과 의사소통 할 것인가?' '장애아동의 행동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장애아동을 어디까지 도와주어야 할 것인가?' '장애아동은 우리와 어떤 점이 다르고 어떤 점이 똑같거나 더 나은가?' 등과 관련된 교육

이 다양한 교재나 방법을 통해 계획되고 이루어진다면, 이미 성공적 통합프로그램을 위한 기초를 실행하기 시작했다고 할 수 있겠다. 통합프로그램의 실행은 몇번 강조하였듯이 장애아동의 발달적 효과만을 위한 것은 아니다. 궁극적으로는 '그래야만 하기 때문에', 즉 '우리 사회의 한 구성원이며 함께 살아가야 하니까'라는 이유로 통합은 이루어져야 하지만, 통합후 일반아동들이 갖는 교육적 효과도 우리는 주목해야 한다.

얼마전 한 유치원 원장선생님은 "우리 유치원에서 장애아동을 몇년째 계속 통합하는 것은 일반아동들이 더 성숙해지는 모습을 발견했기 때문이에요."라고 말하였다. 이는 굳이 문헌에 나타난 효과를 들지 않아도 현장 경험으로 느끼는 일반아동에 대한 긍정적 효과라고 생각된다.

그외의 총신대, 곡교어린이집을 포함한 통합프로그램중 장애아동의 발달을 돕는 프로그램은 장애아동별 특성과 수준에 따라 적용 가능하다. 통합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따라 수업후 '소그룹지도'를 통해 발달을 돕기도 하며, 특히 공통적으로는 장애아동의 현재의 발달 수준을 파악하여 유치원활동내에서 장애아동의 발달을 도와주는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선결되어야 할 조건은 장애아동의 발달 수준에 대한 평가이다. 이를 위해 전문가관에 의뢰해도 되고, 원내에서 발달 수준을 평가하는 자료가 있어도 가능하다고 본다. 예를 들어, 언어지도의 경우 장애아동의 언어표현 수준을 파악하여 활동내에서 아동이 표현할 수 있는 언어를 중심으로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거나 대답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 친구나 교사가 한 말을 따라 해보게 하는 것 등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대체로 장애아동의 발달 수준이 파악되지 않으면, 교사나 친구들은 장애아동

이 할 수 없으리라는 선입견으로 교육활동내에서 장애아동을 제외시켜 두기가 쉽다. 장애아동은 앉아만 있고 결국 참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유치원 활동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부분적으로라도 장애아동이 유치원활동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장애아동의 발달을 도울 뿐 아니라, 장애아동과 일반아동이 같은 반 친구로서 '무언가를 함께 하고 있다'는 일체감을 형성시켜주기 때문이다.

또한 장애아동의 발달수준의 평가는 '어디까지 도와줄 것인가'를 결정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지난호에서 장애아동을 통합하고 있는 어린이집 교사의 궁금한 점에 대한 대답도 되리라 생각되는데, 장애아동을 통합시켰을 때에는 '장애아동의 발달 정도를 파악한 후에 어느 정도까지, 어떻게 도와주어야 할 것인가'를 결정하여야 한다. 궁극적으로 장애아동이 스스로 해야만 하는 기술인 경우(특히 신변처리/자조기술) 타인의 도움은 빨리 제거되어 아동 스스로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장애아동의 수준에 맞추어서 도움을 큰 도움에서 작은 도움으로 줄여 가는 것이 필요하겠다. 예를 들면 신발을 벗는 것은 할 수 있으나 오른쪽/왼쪽을 맞추어서 신고 찢끼이를 못붙이는 아동의 경우, 아무 도움없이 끈 있는 신발의 신발 끈 묶기까지 스스로 해내기를 기대할 수는 없다. 보다 쉬운 기술인 '끈 없는 신발 신기'에서 오른쪽/왼쪽 찾기는 발모양이 그려진 바닥그림을 단서로 신발을 바르게 맞춰놓게 하고, 신발을 신고 찢끼이 붙이기는 아동의 손을 잡고 함께 한다든가 등의 아동에게 맞는 단서와 도움을 제공하는 것이 좋겠다. 또한 신발 신기는 스스로 해야만 하는 기술이므로, 교사나 성인이 항상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도움이나 단서를 점차로 희미하게 줄여감

으로써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도움이나 단서는 아동의 신체적 조건에 따라 때로는 보조도구(점자, 레코더, 등)나 보조장치(의족, 휠체어 등)를 사용할 수도 있겠다.

도움이나 단서를 주는 방법은 수업장면에서도 다르지 않다. 선긋기도 안되는 장애아동에게 아무런 단서없이 같은 반 친구들처럼 집 그리기를 시키는 것은 장애아동에게 좌절스러운 과제일 수 있다. 이런 경우 장애아동의 과제에는 점선으로 집이 그려져 있어서 장애아동이 점선을 따라 그릴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것도 장애아동의 부분적 수업참여를 위한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통합된 장애아동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활동을 보면서 느낀 점은 장애아동들은 다른 어떤 시간보다 '자유놀이 활동'시간이 가장 중요하면서도 교사나 또래의 도움없이 발전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필자는 자유놀이시간을 일반 또래친구들처럼 활동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기술이 필요한가를 항상 절감하게 된다. 먼저 많은 장애아동들은 좀처럼 친구들에게 말을 걸거나 몸짓으로라도 놀이를 시작하는 행동을 하려 하지 않거나 적절한 방법으로 하지 못한다. 특히 자폐적인 성향의 아이들은 혼자놀이를 유지하고 누가 와서 놀이를 시작해도 피하거나 공격적인 행동을 하곤 한다. 발달이 늦고 위축된 아동들도 위축된 자아개념 때문에 좀처럼 또래그룹에 들어가지 못한다. 일단 놀이가 시작되어도 놀잇감을 나누거나 공유할 수 있는 기술도 부족할 수 있다. 갈등상황이 생겼을 때 해결하는 기술도 부족할 수 있다. 자유놀이를 관찰해보면, 자유놀이에 필요한 이러한 기술들이 부족한 장애아동들은 구석에서 혼자 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놀잇감조차 바꾸지 않고 50-60분을 pico게임만 하

고 있거나, 좋아하는 글씨만 쓰고 있거나, 소리 장난감을 계속 눌러보고 있는 등의 경우를 많이 보게 된다. 이때 담임교사는 아동이 갖는 특수성 때문에 선부르게 개입하면 안된다는 행각에 50-60분의 자유놀이시간을 아동이 혼자 놀도록 내버려두기 쉽다. 그러나 필자는 이러한 자유놀이 시간이야말로 교사의 놀이 중재와 또래와의 놀이를 통한 상호작용 형성을 위한 배려가 필요한 시간이라고 생각한다. 놀잇감을 바르게 사용하는 방법, 놀잇감을 나누어주고 친구 옆에서 놀거나 친구와 함께 노는 방법, 친구와 싸웠을 때 사과하는 방법, 다양한 놀잇감을 경험해보는 것, 놀이 규칙을 익히는 것, 놀잇감을 제자리에 정리하는 방법 등을 장애아동도 배워야만 하는 것이다. 여기서 다시 한번 또래 친구들을 훈련시켜서 장애아동과의 의사소통과 놀이를 적절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과 중재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지금까지 통합에 관련된 글을 통해 다루지 못한 구체적인 활동과 사례들을 정리해보았지만 부족한 점이 많았음을 느낀다. 무엇보다 현장에서 통합보육/교육을 이끌어가고 있는 선생님들이 어려운 점을 간접적으로나마 경험하고 알고 있기에 더욱 더 명확하고 확실한 해답이 없는 글이 되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든다. 그러나 정책, 일반교육, 특수교육, 부모님의 인식 등이 보다 발전적으로 향상되어 갈 것을 확신할 때, 지금 현장에서 통합교육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실행하고 있거나 앞으로 통합을 계획하고 있는 여러 선생님들은 21세기를 이끌어갈 동등한 사회 구성원 하나하나를 훌륭한 사회 인력으로 키워가고 있는 선구자가 될 것이라고 믿는다.

기획

아이들에게 무엇을 보여주느냐에 따라 아이들은 세상을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이정주 · 서울YMCA 좋은방송을 위한 시청자모임

본회 교육센터 상반기 강좌중 '영상매체의 교육적 활용' 강좌가 5월에 있었습니다. 이때 2차례의 강의를 해주신 이정주선생님이 '우리네 아이들'의 독자를 위해 6개월간 '영상매체의 모니터 활용'에 대한 기사를 써주시기로 하였습니다. '영상매체를 살고 있는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영상물을 보여줄 것인가? 그리고 영상매체의 영향은 어디까지인가에 대해 고민하고 계시는 회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부모교육에도 활용하면 좋겠조.

관심있게 읽어주시고 동료들과의 활발한 토론도 기대합니다. 또한 이 기사에 대한 소감을 편집부로 보내주시면 언제든지 환영, 환영!! 귀한 글을 약속해주신 이정주선생님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점점 갈수록 부모노릇, 선생노릇 하기가 힘들어진다. 오로지 공부 잘하는 것이 최고의 효도요, 공부 못바라지하는 것이 임무였던 시절에는 무엇이 공부에 방해가 되는 것이다 아니다가 비교적 분명했다. 그리고 일단은 선택의 폭이 다양하지 못했다. 그래서 교육방법에 있어 그다지 혼선이 빚어지지 않을 수 있었다. 그런데 지금은 양상이 달라지고 있다. 공부도 중요하지만 적성도 중요하다. 그래서 다양한 교육매체가 개발되고 있다. 조기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그런가하면 다른 아이보다 학교에 한 살 일찍 들어간 아이가 적응을 잘 못한다는 이야기도 있다. 영어는 언제부터 해야 하는지, 미술학원은 일찍 보내는 것이 그다지 좋지 않다는데, 피아노교육은 아이가 싫증을 내더라도 달래가면서 시키는 것이 더 현명한 것인지 등등 일관성 없는 정보들이 돌아다니고 부모들은 여기 기웃 저기 기웃 하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다.

그런가 하면 요즘 아이들은 '영상세대'라 일컫는다. 영상세대를 이해하지 않고는 아이들을 이해할 수 없다. 세상에 태어나 눈을 뜨면서부터 TV를 접하기 시작한 아이들은 이상과는 또 다른 TV라는 세상을 보고 산다. 얼마전 영국에서 조사된 바에 의하면 한 인간이 평생동안 TV를 보는 시간이 자그마치 12년이나 된다고 한다. 우리가 TV 앞에서 꼼짝없이 앉아있는 시간이 무려 12년이라는 말이다. 과연 우리는 이 문제를 진지하게 생각해볼 수 없게 되었다.

기성세대에는 TV가 무척 신기한 그 무엇이었지만 요즘 아이들은 TV를 하나의 기계로 다들

줄 알고 또 하나의 무대로 활용할 줄도 안다. 그러나 그렇게 친숙해졌다고 해서 그들이 TV를 전부 아는 것은 아니다. 그들은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이 TV 앞에 앉아 일어날 줄 모르며 TV 속의 세상을 동경하고 여전히 TV가 시키는대로 한다.

우리는 '아름세대'니, '캔디세대'니, '마징가Z세대'니 운운하곤 했지만 요즘 아이들은 한마디로 딱 잘라 말하기 힘들다. 책방이건 비디오가게이건 무엇을 골라주어야 할지 모를 정도로 아이들 볼 거리가 많다. 만화도 웬만한 것은 다 시리즈물이다. 극장용이 있는가 하면 TV용이 따로 있고, 원판이 있는가 하면 복사판도 있다. 원어가 있는가 하면 더빙된 것도 있다. 공중파 TV가 있는가 하면 한낮에도 나오는 케이블TV가 있다. 그래서 하루종일 만화를 볼 수도 있다. 그런가 하면 물건을 고를 때도 고민이다. 만화에 나온 주인공 캐릭터가 그려져 있는 상품은 아이들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오는가 보다. 오늘 가고 내일 또 가면 갈 때마다 새로운 그림의 문구류, 편지용품이 전시되어 있고 운동화, 옷은 말할 것도 없다. 우산은 디즈니, 양말도 디즈니, 하다 못해 머리핀도 디즈니, 노트는 세일러문, 필통도 세일러문, 팔찌도 세일러문. 어쩌다 장난감 가게에 가면 아주 단순한 전자음의 음정도 정확하지 않은 멜로디가 나오는 요술봉, 합체와 분해가 가능한 로봇 다간, 부르는 값에 눈이 나오는 적이 한 두번이 아니다. 때면 말할 수도 없는 노릇 아닌가. 어쩌면 이렇게 다양할까? 아이들의 눈이나 내 눈이나 모두 휘둥그레질 수밖에.

그러나 어차피 우리는 많은 것을 다 가질 수 없다. 그리고 그 많은 것을 다 볼 수는 없는 것이다. 무엇인가 선택할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해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가', '무엇을 보여줄 것인가'이다.

아이들이 어느날 다큐멘터리를 즐겁게 보는 장면을 발견하거나, 딱딱하고 난해한 뉴스를 보면서 관심을 갖고 요것 조것 물어보는 것을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이것은 TV에 매우 익숙해진 아이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던 어느날부터 자기 스스로 코드를 쫓거나 리모콘을 조종하게 되면서 자기 취향에 맞는 것을 보려고 하는데 특히 이럴 경우 초기에 부모나 교사의 역할이 강조된다. 먼저 내용을 모니터해야 하는데 이럴 때는 나름대로 평가 기준이 있어야 한다. 만일 아이가 보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여겨지는 경우는 다른 프로그램에 관심을 갖도록 유도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TV를 끄고 다른 놀이를 제공해서 애착을 갖게 되는 것을 막을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 중요한 문제는 모니터 평가 기준이 될 것이다. 물론 개인마다 다를 수 있다. 예를 들면 'TV 유치원'에서 영어 한마디 가르쳐 주는 코너가 있는데 과연 조기영어교육이 필요한지, 방식이 적합한지 등 여러 가지를 생각해볼 수 있다. 이것은 TV를 보고 있는 아이들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부모 또는 선생인 나 자신의 교육관의 문제인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문제를 자기문제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참고로 아이들 프로그램에 대한 다른 정보들을 활용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최소한 아이들의 반응에 관심을 갖고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대화하는 기회를 갖는 것이 필요하다. 아무튼 정보를 모아 무엇인가 결론을 내리는 것이 중요한 작업이다. TV는 부모나 교사의 교육관에 따라, 가치관에 따라 얼마든지 조정되고 다르게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때로는 어쩔 수 없이 아이들을 TV 앞에 홀로 방치할 수 있다. 그러나 언제나 그렇다면 문제가 된다고 볼 수 있다. 심한 경우에는 언어능력을 상실하는 아이들이 경우도 있다. TV는 말만 하지 들어주질 않고 기다려주지도 않는다. 대인관계가 형성될 수 없는 것이 당연하다. 조사에 따르면

취학전 아이들의 TV시청 시간은 하루에 약 2시간 정도이다. 이보다 많으면 많이 보는 것이라고 생각해도 좋다. 아이들은 TV 뿐만 아니라 비디오, 전자오락, 컴퓨터 등 다양한 매체들을 접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조절이 필요하다. 또 다른 조사에 따르면 정상아들에게는 TV를 연속적으로 1시간 이상 보여주는 것은 오히려 교육적으로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한다. 반면에 지능이 낮은 아이인 경우에는 TV가 교육적으로 도움이 되기도 한다고 한다. 그러나 역시 장시간 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뭐라해도 TV에 몰입하는 아이들, TV를 즐기는 아이들에게 어떤 세상을 배우게 하는가 하는 선택은 부모나 교사에게 달린 것이다. 부모나 교사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아이들에게 TV는 다르게 보여질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TV를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 아이들은 세상을 달리 이해할 수도 있는 것이다.



유아체육

측정 및 평가

손현민 · 아동능력개발연구소(ICAD) 교육연수실장

앞서 실었던 글에서 과학적인 평가의 필요성에 대해 잠시 이야기한 적이 있다. 평가란 교육효과를 알아보기 위해서도 사용되지만 수업계획 단계에서도 대상을 파악하기 위한 수단으로 실시되며 체육에 있어서는 체력검사, 운동능력검사, 신체활동량검사 등이 있다.

체육 수업은 이와 같은 테스트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계획이나 교수방법 등이 수정, 보완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번 호에서는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간단한 측정방법을 몇 가지 소개하려고 한다. 측정 및 평가를 제대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어야 하지만 잘 모른다고 하지 않는 것보다는 간단한 방법을 이용해 조금씩 시도해 보는 것도 편함을 첫 값다.

훌륭한 신체교육 지도자는 적절한 테스트를 할 줄 알아야 한다. 때문에 체육 전공자들은 대학에서 측정 및 평가의 필요성, 이론을 배우고 있다. 적당한 측정 및 평가를 하지 않는 체육 교사는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여러 이유로 인해 아이들을 테스트하지 못할 경우 담임 교사 스스로 할 수밖에 없다. 물론 그 전에 측정을 수행할 만한 기관이나 전문가를 찾아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측정 및 평가의 필요성

보통 우리 아이가 건강한지, 체력은 좋은 편인지 또는 나이에 따라서 제대로 성장하고 있는 건지 궁금할 때가 있다. 그러나 부모나 교사들에게 주어지는 정보들은 주로 주변의 아이들 또는 같은 반 아이들과 비교하거나 경험에서 오는 것이다. 물론 이것이 중요한 정보이기도 하나 과학적이고 체계적이지는 않다. 예를 들어 병원에서 의학적으로 병이 없다는 것이 곧 완전한 건강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옆 집 아이가 더 빨리 달린다고 해서 우리 아이의 체력이 떨어진다고 말 할 수도 없다. 옆집 아이가 연령에 비해 매우 높은 체력을 가졌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개인이 얻을 수 있는 정보들은 비교집단이 적음으로써 가끔 오해를 일으킬 수 있다.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많은 아이들을 대상으로 과학적인 방법으로 측정을 하고 이것을 경험과 이론을 바탕으로 평가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측정 및 평가의 잇점

아이들을 대상으로 신체적 능력을 테스트하는 것에는 몇 가지 잇점이 있다. 우선 ① 부모와 아동에게 건강 및 체력에 대한 바른 인식과 중요성을 심어주게 된다. ② 또 자녀의 상태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얻게 된다. ③ 자녀의 측정 결과를 같은 연령의 평균과 비교해서 수준을 파악할 수 있고 매년의 자료를 모아 향상 정도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④ 자신의 체력이 향상되어가는 것을 느끼는 아이는 좀 더 적극적으로 활동에 참여하게 되고 다른 영역에서도 열성적이 될 수 있다. ⑤ 교사는 학습적인 영역에서 신체적인 영역까지 아동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다.

일반적으로 테스트는 매년 실시하는 것이 좋지만 1년에 2회를 넘을 필요는 없다. 늘 강조하는 부분이지만 신체활동은 흥미로운 것이어야 한다. 측정도 마찬가지이다. 자칫 기록에 집착해서 아동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왜냐하면 아동을 대상으로 한 테스트의 목적은 등수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 아동의 상태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1. 체력검사

체력의 개념은 흔히 말하는 것처럼 간단하지 않지만 여기서는 '운동능력'에 국한해서 생각하기로 한다. 체력은 건강과 운동능력에 기여하는 정도에 따라 건강관련 체력과, 행동관련 체력의 두 가지로 크게 나뉜다.

전자에 속하는 요소로서는 지구력, 근력, 유연성, 평형성, 신체조성이 있고 후자에는 순발력, 민첩성 등이 있다. 대부분 건강관련 체력을 더 강조하는데 이유는 건강체력이 건강과 더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동을 대상으로 한 측정은 건강체력 요소에 비중을 더 많이 두고 있다.

1) 유연성

유연성이란 간단히 말해서 몸이 얼마나 부드러운가를 보는 것이다. 보통 유연성은 건강과 크게 관련이 없다고 생각한다. 또 여성에게나 필요한 것이지만 남성에게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되어지기도 한다.

그러나 일반적인 관념과는 달리 유연성은 건강에 매우 중요한 뿐 아니라 남·여 모두에 필요한 체력요소이다.

유연성이란 각 관절의 가동 범위를 말한다. 즉, 유연성이 좋은 사람은 각 관절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다는 이야기다. 유연성은 만 11세가 되면서부터 감소하기 시작해서 나이가 들어감에 따

라 점점 감소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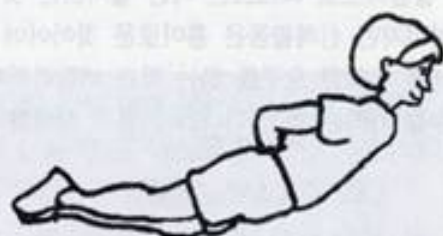
유연성의 향상으로 얻을 수 있는 장점

- 균형잡힌 자세 유지
- 갑작스런 상해 예방
- 요통의 방지 및 완화
- 근육의 경직 감소

측정방법

옆 그림과 같은 자세를 체후굴이라 한다.

- ① 보조자가 다리를 눌러 움직이지 않도록 한다.
- ② 열중쉬어 자세를 하도록 한다.
- ③ 서서히 몸을 젖혀 더 이상 젖혀지지 않는 상태에서 턱이 가리키는 지점을 측정한다.



<그림 1> 체후굴 자세

준비물

- 50cm 자

※ 허리를 젖힌 자세를 오래 하면 허리에 무리가 갈 수 있으므로 재빨리 기록을 측정하여야 한다.

2) 근력

일반적으로 근력이란 근육이 발휘하는 힘이다. 흔히 운동을 심하게 하면 근육이 비대해진다고 생각한다. 전혀 엉뚱한 생각은 아니지만 실제로 보다벌더 같이 될 가능성을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왜냐하면 육체미대회에서 볼 수 있는 그런 근육은 오랜 시간 뼈를 깎는 고통과 노력이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일주일에 3~4회 한 두시간 정도의 운동으로 근육맨이 될 거라는 생각은 지나친 것이다.

근육의 발달은 테스토스테론이라는 남성호르몬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남성호르몬이라고는 하지만 정상적인 남·여 모두에게 존재하는 것인데 최근에는 중년이 넘을수록 매우 유용한 호르몬 중 하나라는 사실이 밝혀졌는데 적절한 운동은 테스토스테론의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

여성은 남성과 같은 양의 운동을 해도 근육의 비대는 적게 발생한다. 이런 이유로 웨이트 트레이닝은 여성의 몸매를 더욱 여성답게 만들어 준다.

근력의 측정에는 주로 복근이 이용된다. 근력이란 근육이 발휘하는 힘을 말하므로 다리나 팔

의 근육을 측정해도 무방하지만 복근은 여러 가지 면에서 다른 근육들보다 중요하게 여겨진다. 복근은 바른 자세의 유지, 요통 방지 등에 큰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근력의 향상으로 얻을 수 있는 장점

- 뼈의 성장 촉진과 고밀도화
- 요통의 방지 및 완화
- 올바른 자세유지

측정방법

근력은 팔 굽혀 펴기, 윗몸 일으키기 등으로 측정하지만 정상적인 동작은 이 시기의 아동이 실시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래서 약간 응용하여 실시하는데 팔 굽혀 펴기의 경우 무릎을 바닥에 대고 실시하도록 하고, 윗몸 일으키기는 이불이나 매트 등을 밑에 대고 실시한다.

- ① 어깨부위에 매트나 이불을 깔로 눕는다.
- ② 발바닥은 바닥에 붙이고 팔을 편다.
- ③ 몸을 일으켜 손이 발 뒤꿈치에 닿으면 1회로 계산한다.
- ④ 이 때 발을 잡아주어도 된다.



<그림 2> 근력측정자세(Curl-up)

준비물

- 이불이나 매트

3) 평형성

평형성은 정지된 동작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기본적으로 정지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은 걷기, 달리기, 구르기, 뛰기 등과 연결되어 다양한 동작을 가능하도록 해준다.

신체는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주위 환경과 온 몸으로부터 끊임없이 정보를 받아들이고 그에 적절한 반응하게 된다. 이러한 역할을 담당하는 기관은 근육, 시각, 공간지각을 감지하는 전정계이다. 몸의 중심을 잘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은 아동 신체를 공간상에서 효과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록 해준다.

평형성의 향상으로 얻을 수 있는 장점

- 시각, 전정계의 발달
- 신체의 효율적인 이동
- 갑작스런 부상방지
- 공간지각 발달

측정방법

- ① 양 팔을 벌린 다음 한 발을 들게 한다.
- ② 발을 들 때부터 한 발이 바닥에 닿거나 중심을 잡은 발이 움직일 때까지 시간을 기록한다.
- ③ 두 번 실시하여 기록이 좋은 것을 택한다.

준비물

- 초시계

4) 신체조성

지나치게 비만을 걱정할 필요는 없는데 병적인 원인이 아닌 한 아동의 비만은 정상적인 식습관과 운동을 통해 바로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비만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비만을 걱정하여 무리한 다이어트를 하는 것이 건강에는 더 좋지 않다.

신체조성이란 간단히 말해서 비만이나 아나사를 결정하게 되는 근육과 지방의 양을 말하는 것이다. 어느 정도 튼튼한 체격이 좋게 받아들여졌던 때도 있었지만 비만은 모든 질환의 원인이 되는 질병 중의 하나이다. 비만이 되는 원인은 유전, 병, 환경 등 다양하다. 참고로 7세인 아동이 비만일 경우 성인비만으로 진행될 확률은 41%나 된다. 또한 정상인에 비해 비만인 경우 고혈압 발생률은 10배, 당뇨는 3배, 암도 3배 이상 높다.

측정방법

비만도를 측정하는데는 매우 다양한 방법들이 있다. 그 중에서 사춘기 이전 소아의 비만판정에 이용되는 방법 중 하나로 Rohrer 지수라는 것이 있다.



<그림 3> 평형성측정자세

체중/신장³ × 10⁷

신장 110~129cm → 180 이상
신장 130~149cm → 170 이상
신장 150cm 이상 → 160 이상을 비만으로 판정한다.

이상으로 간단한 체력측정에 대해 알아보았다. 위에 언급된 것 같이 측정치가 숫자로 기록되는 것을 양적분석이라고 한다. 만약 이동의 능력을 보다 신뢰롭게 알고자 한다면 양적 분석만으로는 부족하다.

이것을 보완하는데는 여러 방법이 있겠으나 ICAD에서는 아동의 운동수준을 자세히 기술하는 질적 분석방법을 도입하여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 방법은 좀 복잡하고 여러 단계를 거치게 되므로 여기서는 자세히 언급하지 않도록 하겠다.

측정 및 평가에 관련되어 한 가지 꼭 알아두어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은 체력측정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설령 정확한 측정을 했다 하더라도 체력의 우열이 아동의 건강이나 신체적 발달의 우수성을 증명하는 것은 아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첫째, 건강을 이루는 요소는 알려진 것만도 대단히 많다. 체력 뿐 아니라 유전, 환경, 생활습관, 식습관, 지역 등에 영향을 받는 다양한 원인들에 의해 결정되어진다. 또 다른 이유는 측정의 타당성, 신뢰성에 문제이다. 어린 아이들은 그때 그때의 상황이나 조건에 따라 매우 다른 결과를 보일 때가 많다. 아무리 쉽게 실증을 내는 아이도 좋아하는 것을 할 때는 오랜 시간 집중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측정 그 당시의 기록만으로 그 아이의 능력을 100% 대변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는 것이다.

앞서 말했듯이 측정 및 평가의 목표는 우열을 가리는 것이 아니므로 기록에 연연할 필요는 없다. 또 한꺼번에 많은 것을 얻으려고 욕심 부리지 말아야 한다. 간혹 측정에 응하지 않는 아이가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교사의 입장에서는 한 명이라도 빠지지 않는 것이 좋으므로 무리하게 강요할 수가 있다. 그러나 측정에 응하지 않는 경우 그 아이는 하고 싶지 않은 것이다. 이럴 경우 당연히 측정치는 그 아이의 능력을 대변한다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간단한 측정이라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지식과 경험이 필요하다. 약간의 관심을 가지고 주위를 살펴보면 이용 가능한 자료를 많이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한 번의 측정 및 평가를 통해 너무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왜 아이들을 테스트 하는지 근본적인 목적을 잊지 않는다면 양육이나 교육에 필요한 많은 자료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보육환경

보육시설 운영에 대한 교사 자기평가 조사

· 한국여성개발원 ·

편집부에서 : 한국여성개발원에서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에 관한 연구” 책자를 발간하였습니다. 이중 연구를 위해 보육시설들의 질적수준을 파악하기 위한 ‘보육교사 자기평가 조사’가 현직 보육교사 600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는데 본회에 서는 이 자료를 회원들과 공유하고자 실습니다.

과연 보육교사의 자기평가를 아래와 같은 조사내용으로 하는 것이 올바른건지, 옳바르지 않다면 평가척도는 어떠한 기준이 바람직한지 의견이 있으시리라 봅니다. 또한 이 조사가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면 교사 스스로 평가해 보고 시설교사 또는 각 단위 교사회에서 토론헌길 제안합니다.

부탁의 말씀은 이 자기평가서에 대한 교사 개인의 의견 또는 교사회의 의견을 다음호 발간 전까지(8월 20일) 본회 편집부로 보내주시면 성의껏 기재하려 하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보육교사 자기평가조사는

- ③번은 그렇다. 거의 그렇다. 그렇게 한다. 자주 한다는 경우입니다.
- ②번은 하기는 하나 적절하지 못한 부분도 있고, 자료는 있지만 1,2가지 정도이며, 편중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또한 하기는 하나 일관성이 없는 경우입니다.
- ①번은 전혀 없다. 전혀 그렇게 하지 못한다. 특별한 준비가 없다. 거의 실시하지 않는다. 거의 없다. 잘 못하고 있다 등의 경우입니다.

1. 일과계획 및 상호작용

1	시설의 보육철학과 보육목적을 반영하여 연간 일과계획을 작성한다.	3	2	1
2	일일 계획안에는 목표, 활동내용, 활동시간, 준비물, 지도 방법, 평가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3	2	1
3	정적 활동/동적 활동이 균형있게 계획되어 있다.	3	2	1
4	개별활동/소집단 활동/대집단 활동이 균형있게 계획되어 있다.	3	2	1
5	보육활동은 보육지침에 제시된 5개 영역중 어느 한 영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계획한다.	3	2	1
6	한 가지 활동에서 다른 활동으로의 전이가 자연스럽게 이루어 지도록 운영한다.	3	2	1
7	교사는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친절하게 유아를 대한다.	3	2	1
8	유아의 생각에 부응하거나 추가 정보를 제공해 준다.	3	2	1
9	유아와 이야기를 나눌 때 유아의 눈높이에 맞게 자세를 낮춘다.	3	2	1
10	교사는 비판하기, 꾸짖기, 위협하기 등의 부정적인 방법보다는 칭찬이나 격려하기 등의 긍정적인 방법을 사용한다.	3	2	1
11	교사는 일과활동 속에 유아가 선택할 수 있는 몇가지 대안적인 활동들을 마련한다.	3	2	1
12	남녀 유아 모두에게 다양한 활동에 골고루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3	2	1

2. 교육과정

2-1. 건강

13	사고나 위험한 상황에 대비시킨다.	3	2	1
14	감각을 이용한 여러가지 학습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한다	3	2	1
15	건강을 위한 구체적인 활동을 실천하도록 한다.	3	2	1
16	매일 정기적으로 실외나 실내에서 대근육운동과 신체활동을 위한 시간을 계획하고 실천한다.	3	2	1

2-2. 사회

17	유아에게 예절, 질서 등의 기본생활습관을 지도한다.	3	2	1
18	유아가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 행동을 상황에 맞게 조절하도록 격려한다.	3	2	1
19	유아가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갖도록 돕는다.	3	2	1
20	이웃에 대하여 관심을 갖도록 돕는다.	3	2	1

2-3. 표현

21	또래 친구의 생각이나 표현을 존중하도록 격려한다.	3	2	1
22	여러 가지 자료를 활용하여 창의적인 미술활동의 기회를 제공한다.	3	2	1
23	다양한 소재를 활용하여 창의적인 동작활동의 기회를 마련한다.	3	2	1
24	극놀이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3	2	1

2-4. 언어

25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주의깊게 듣도록 지도한다.	3	2	1
26	교사가 하루 일과를 통해 바람직한 언어모델을 제시한다.	3	2	1
27	교사는 유아에게 적절한 질문을 한다.	3	2	1
28	읽기와 쓰기에 관심을 갖게 하는 다양한 활동을 한다.	3	2	1

2-5. 탐구

29	씨앗 싹트기, 동물의 생활 등을 관찰함으로써 자연 현상에 관심을 가지도록 한다.	3	2	1
30	다양한 놀잇감을 통해 물·모래 놀이를 장려한다.	3	2	1
31	사물의 모양, 색, 크기에 따라 변별·분류하고, 이름을 붙이는 놀이활동을 한다.	3	2	1
32	물체를 가지고 수 개념에 관련된 활동을 한다.	3	2	1

3. 물리적 환경

33	건물에는 비상구와 소방시설이 갖추어져 있다.	3	2	1
34	화장실과 세면장은 유아의 신체 크기에 적절하다.	3	2	1
35	보육시설의 주위 환경은 조용하며, 건강과 위생이 고려되어 있다.	3	2	1
36	한 유아당 필요한 실내 공간이 마련되어 있다.	3	2	1
37	흥미영역은 4개 이상의 영역으로 구성되며, 기본 영역으로는 쌓기놀이 영역, 책보기 영역, 역할놀이 영역, 조작놀이영역이 포함되어 있다.	3	2	1
38	흥미영역은 각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의 활동성 정도와 그 영역에서 발생하는 소음의 정도에 따라 배치되어 있다.	3	2	1
39	유아의 작품을 전시할 수 있는 벽면 또는 공간이 있다.	3	2	1
40	유아가 사용하는 교구정리장과 개인 사물함의 높이 및 용판 게시판 등은 유아의 눈높이에 알맞다.	3	2	1
41	화장실과 세면장은 활동실에서 직접 연결되는 문이 있어 활동실로부터의 출입이 용이하다.	3	2	1
42	한 유아당 필요한 실외놀이 공간이 마련되어 있다.	3	2	1
43	물, 모래 등 유아의 조작과 탐구 활동을 촉진시킬 수 있는 설비가 갖추어져 있다.	3	2	1
44	균형잡기, 오르기, 매달리기, 미끄럼 타기 등과 같은 다양한 신체 활동을 할 수 있는 기구가 설치되어 있다.	3	2	1
45	교재·교구들은 계절과 단원의 주제에 따라 변화되고 교체된다.	3	2	1
46	교재·교구는 개방식 장에 넣고 구분 표시를 해 두어 유아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다.	3	2	1
47	유아들이 너무 오래 기다리거나 다투지 않을 만큼 충분한 양의 교재·교구가 마련되어 있다.	3	2	1
48	쌓기놀이를 위한 자료가 다양하게 있다.	3	2	1

4. 영양 · 건강 · 안전

49	음식의 보관 상태가 위생적이다.	3	2	1
50	당분의 의존도가 낮은 간식/급식이 제공된다.	3	2	1
51	교사가 간식/급식 시간에 유아와 함께 앉아 대화를 나눈다.	3	2	1
52	간식/급식 준비와 정리에 유아가 참여하도록 권장한다.	3	2	1
53	세면장에는 깨끗한 수건, 비누 등이 정리되어 있다.	3	2	1
54	교사는 유아의 안색과 건강 상태를 매일 점검한다.	3	2	1
55	유아는 화장실 사용 후, 음식 먹기 전, 실외놀이 후에 반드시 손을 씻는다.	3	2	1
56	유아가 필요할 때 갈아입을 속옷 등이 사물함에 준비되어 있다.	3	2	1
57	소독약, 탈지면, 반창고, 체온계, 붕대 등 응급 처치용구급 약품이 준비되어 있다.	3	2	1
58	실내시설 설비는 매일 청소와 환기를 하고, 정기적으로 소독을 한다.	3	2	1
59	시설은 사고 발생시의 대처방안을 수립하고 있다.	3	2	1
60	교사는 시설의 안전과 파손 여부를 정기적으로 살핀다.	3	2	1
61	난방기구는 유아의 몸이 직접 닿지 않도록 설치되어 있고, 화재의 위험이 없다.	3	2	1

5. 운영관리

62	시설의 운영에 관해 원장과 교사들간의 의사소통이 활발히 이루어진다.	3	2	1
63	정기적으로 교사 회의가 있고, 교사들간의 의사소통이 활발히 이루어진다.	3	2	1
64	개별 유아에 관한 각종 기록과 문서가 보관되어 있다.	3	2	1
65	회계 장부 및 수입, 지출 관계 서류를 비치하고 있다.	3	2	1
66	비품 및 설비 대장을 정리하여 보관한다.	3	2	1
67	교직원간의 업무 분담과 책임이 명확하다.	3	2	1

68	모든 교사는 봉급과 수당을 포함한 정규 급여를 받는다.	3	2	1
69	교사의 임용과 해임은 관계 법규에 준한다.	3	2	1
70	시설 내에서 교사들간에 세미나, 연구 보고, 토론 등의 시간이 마련되어 있다.	3	2	1
71	교사용 전문 서적이거나 비디오 테이프 등의 자료를 기관의 예산에서 구입한다.	3	2	1
72	교사들은 적어도 1년에 두번 이상 강습회, 세미나 등 보수교육에 참가한다.	3	2	1
73	원장은 각종 연수 기회나 학회의 강연회, 세미나 등에 참가한다.	3	2	1
74	새로 임용되는 교사에게는 시설의 보육철학, 안전에 관한 사항, 운영 방침 등을 소개하는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한다.	3	2	1
75	프로그램의 보육철학과 기관의 운영 방침을 서술한 부모용 안내 자료가 있다.	3	2	1
76	유아의 발달 및 보육과 관련된 의견 교환을 위해 교사는 최소 1년에 2회 이상 부모 면담을 한다.	3	2	1
77	부모교육은 부모회, 부모참여활동, 자원봉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된다.	3	2	1
78	일과활동이 끝난 후 교사들은 하루의 활동에 대한 자체적인 평가를 한다.	3	2	1
79	시설은 개별 유아의 행동발달 및 생활을 관찰하고 기록하는 양식을 갖추고 있다.	3	2	1
80	유아의 평가는 평가의 목표와 내용에 따라 다양한 방법과 도구를 사용하여 이루어진다.	3	2	1

어린이건강

어린이집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전염성 질환

정기현 · 서울 성북구 보건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이번 원고는 본회 교육센터에서 마련한 교육강좌-건강교사 양성을 위한 특강에서 다루어진 내용으로, 보육시설에서 근무하시는 모든 분들이 알아야 할 사항이라 여겨지기에 다시 한번 여러분께 소개드립니다.

바이러스 감염

1. 홍역(Measles, Rubeola)

홍역은 유행성 질환으로 매우 전염력이 높으며, 과거에는 홍역에 의한 합병증으로 안 좋은 일이 많았으며, 요즘도 홍역을 잘못 이해해서 고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1) 감염양식

5-10세에서 잘 발생하며, 주로 호흡기 분비물 등의 비말에 의해 전염되는데, 오염된 물건에 의해 간접적으로도 전염되며(결막을 통하여 호흡기로) 전염성이 매우 강하여 환자와 접촉한 아이는 90% 이상이 감염된다. 최근에는 10대와 젊은 성인 연령층에서도 발생한다.

2) 전염되는 시기

환자가 몸에 발진을 나타나기 6~7일(1주일) 전부터, 발진 후 2~3일까지 전염력이 가장 높으며, 홍역이라고 진단 내려지기 이전에 이미 그 환자와 접촉을 했을 경우 전염될 수 있다. 그러므로 격리는 환자와 접촉 후 7일부터 발진 후 5일간까지 필요하다.

3) 증상

홍역환자와 접촉했다 할지라도 바로 홍역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평균 10-12일의 잠복기 후에 증상이 나타난다. 처음에는 3-5일 동안 열, 기침, 콧물과 함께 눈동자가 빨개지는 결막염 등이 나타나다가 귀 뒤에서부터 발진이 생긴 후 얼굴, 목, 팔과 몸통을 다리를 통해서 발까지 내려오게 된다. 발진이 머리에서 발까지 내려오는데 대략 3일 정도 걸리는데 이때가 열도 심하고 다른 증상이 가장 심하며 발까지 내려온 이후에는 점차 증상이 회복된다. 따라서 회복 기간은 발진 후 7-10일 정도 걸린다.

4) 합병증

호흡기 합병증이 가장 많아서 폐렴, 기관지염, 중이염 등이 생길 수 있는데 대부분 약물로 치료 가능하다.

5) 치료

합병증이 없는 경우에는 대증요법으로 대부분 좋아진다. 우리나라에서는 홍역이 발생하면 열꽃이 빨리 솟아야 빨리 낫는다고 담요로 둘 둘말아서 덥게 하는 경향이 있으나 이것은 잘못 전해 내려오는 치료방법이며, 만일 이렇게 덥게 하면 아이가 더 힘들어하고 오히려 합병증이 더 발생할 수 있으므로 아이를 너무 덥지 않게 기분 좋을 정도로 해 주는 것이 좋으며, 만일 열이 심하면 시원하게 해주어야 한다.

열이 40℃까지 오르며 3-4일 지속되기 때문에 아이가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보채게 되는데 너무 억지로 먹일려고 하지 말고 보리차만은 조금씩 자주 충분히 먹여서 탈수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열이 너무 심한 경우에는 해열제를 먹일 시간이 아니어도 해열제를 4-6시간 간격으로 먹일 수 있으나 가능하면 아이의 옷을 벗겨서 시원하게 하고 미지근한 물로 몸을 닦아주는 것이 좋다.

빛이 약간 강하면 눈에 자극되어 불편해 하기 때문에 실내를 조금 어둡게 하는 것이 좋으며, 증상이 호전되었다 할지라도 발진이 생기고 최소 5일 이전에는 전염성이 남아 있어서 남에게 옮기게 되므로 다른 아이와 놀게 하면 안된다.

6) 예방

① 홍역·볼거리·풍진(MMR) 예방접종

홍역·볼거리·풍진을 예방하기 위하여 1997년부터 MMR 혼합백신을 생후 12~15개월과 4~6세에 2회 접종한다. 생후 9개월에 실시해오던 홍역 단독백신은 권장하지 않으나 홍역이 유행할 때에는 생후 6개월부터 단독백신을 접종할 수 있다.

〈참고〉 풍진 백신 접종

보건복지부에서는 1994년부터 실시해오던 여자 고등학교 1학년생에 대한 풍진 단독 백신을 1997년에 4~6세에 해당하는 소아가 해당 연령(14~16세)에 도달하기 전인 2006년까지 한시적으로 실시하기로 함

② 예방접종을 하지 못한 소아가 홍역 환자와 접촉된 경우 감마글로블린을 주사하여 홍역에 걸리지 않게 하거나 경한 임상증상을 기대할 수 있다.

③ 비타민A의 공급은 심한홍역 걸린 환자에게 mortality와 morbidity를 감소.

2. 볼거리(유행성 이하선염)

1) 볼거리란 ?

우리 몸에는 침이 분비되는 침샘이 여러군데 있는데 특히 턱 밑에 있는 침샘에 염증이 생긴 경우를 볼거리라고 하며, 유행성 이하선염, 또는 항아리 손님이라고도 합니다.

2) 전염경로

원인균은 바이러스(Paramyxovirus group)이며 환자와 직접 접촉 또는 타액의 전파로 전염되는데 턱밑이 부어 오르기 1-2일 전부터 부은 부분이 다 사라진 후 3일 까지 전염력이 있기 때문에 이 시기에 접촉을 하면 옮길 수 있다.

3) 증상

주로 5-10세 아이에게 잘 발생하는데 병원균이 우리 몸안에 들어오면 2-3주의 잠복기를 거쳐 열, 두통, 근육통, 식욕부진이 1-2일 있다가 귀밑 턱부분이 갑자기 붓기 시작한다. 이때 통증이 있으며 누르면 아파하고 수시간내에 최대로 부어 오르기도 하지만 대부분 1-3일째 최대로 붓고 3-7일 이내에 차차 가라 앉게 되어 회복하는데 대개 1주일-10일의 시간이 걸린다.

약 1/4에서 한 쪽만을 침범하며 30-40%는 감염이 되어도 증상이 나타나지 않고 치유된다.

4) 합병증

① 열, 두통, 구토 증상이 동반되는 뇌막염이 3-10일 후에 가장 많이 발생하지만, 바이러스 질환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후유증이 없이 치료된다.

② 열과 함께 고환이 붓고, 통증이 동반되는 고환염이나 부고환염이 주로 사춘기 이후의 남아에서 잘 발생하는데 치료가 잘 되고 불임증이 되는 경우는 드물다.

③ 그의 췌장염이 발생할 수 있고 청소년기에는 난소염이 잘 발생할 수 있으나 불임증이 되는 경우는 없다.

④ 청력장애(주로 일측성 신경성 난청), 심근염, 심낭염, 심장염, 갑상선염, 관절염, 혈소판 감소증 등을 볼 수 있다.

5) 치료

① 자연 치료되므로 대중 요법만으로 충분하다. 열이 있는 동안 안정을 취하며, 통증이 심할 때에는 해열진통제 복용하고, 국소에 냉(또는 온)습포를 한다. 신 음식을 먹으면 통증이 심해지므로

신 음식은 피해야 한다.

② 남에게 전염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부어오른 것이 가라앉을 때 까지 즉, 발병후 10일 정도는 학교나 유치원에 보내서는 안되며 다른 아이와 놀게 해서도 안된다.

6) 예방

① 홍역, 볼거리, 풍진(MMR) 예방접종 - 동일

② 접종후 면역이 다 생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방접종을 했다 할지라도 볼거리환자와 접촉을 해서는 안된다.

3. 장 바이러스(Enterovirus) 감염

• 분류 : RNA 바이러스인 piconavirus로 poliovirus, coxsackievirus, echovirus 및 enterovirus로 분류

• 사람이 유일한 자연 숙주이며 분변-경구 또는 경구-경구(호흡기) 경로를 통해 사람에서 사람으로 전파

• 소아는 면역학적으로 감염이 되기 쉽고 감염의 발생률은 성별과 무관하나, 남아에서 심한 증세를 보이며, 가족내 전파도 쉽게 일어난다.

• 계절별로는 8, 9, 10월에 많이 발생

• 증상

• Poliovirus(소아마비) - 예방접종이 시행되면서 발생한 예가 거의 없다.

• Coxsackie & echovirus

(1) 비특이적 열성질환

(2) 호흡기질환 - ① 인두염, 편도염, 비인두염

② 포진성 구협염

③ 홍막통

④ 기타 - 이하선염, 기관지염....

(3) 위장관 증세

(4) 급성 출혈성 결막염 - pharyngoconjunctival fever

(5) 심낭염, 심근염

(6) 비뇨생식기 증상

(7) 근염과 관절염

(8) 피부증상 - 수족구병

(9) 신경계 증상 - 무균성 뇌막염

⑩ 신생아 감염

〈포진성 구협염 - Herpangina〉

1) 역학

사람이 유일한 자연숙주이고, 주로 분변-입, 또는 입-입(호흡기)경로를 통해 사람에서 사람으로 전파된다. 분변-피부-입의 경로로 소아에서 소아로 쉽게 전파되고, 가족 내 전파도 쉽게 일어난다. 여름철에 유행하며 5세 이하에서 대부분 발생한다.

2) 증상

41도까지의 급작스러운 열이 발생하며 나이가 어릴수록 더 심하다. 식욕이 없어지고 입안이 아파서 잘 먹을 수가 없다. 5세 미만의 아이에는 25%에서 토하는 증상도 동반한다. 조금 큰 아이는 머리가 아프거나 허리가 아픈 증상이 올 수 있다.

3) 진료소견

열이 있는 동안에 입안을 보면 입천장 뒷부분(연구개)과 편도선 앞부분에 3-4mm의 수포성 궤양을 보인다.

4) 치료

특별한 치료법이 없으며 대부분 3-6일 이내에 자연적으로 좋아진다. 대증요법으로 열에 대한 치료와 잘먹지 않고 토하는 증상으로 인하여 탈수가 올 수 있으므로 보리차등 수분공급을 해 주고 부드러운 음식을 준다.

5) 예후

간혹 무균성 뇌막염, 또는 더 심한 질환이 동반되기는 하나, 거의 없으며 열이 난지 2-3일 지나면 조금씩 먹기 시작하다가 대개 3-6일이 지나면 완전히 회복된다.

〈수족구병 - hand, foot and mouth disease〉

1) 수족구병이란 ?

수족구병은 한문으로 手足口病으로 표기하는데 손, 발, 입에 바이러스에 의해서 발진이 생기는 것을 말한다. 여름과 가을철에 잘 발생하며, 병균이 우리몸에 들어와서 4-6일의 잠복기를 지난 후 손, 발, 입, 엉덩이 부위에 빨간 반점이 생기다가 궤양, 물집이 생기며, 열이 발생하고, 아이가 잘 먹지 못하는 질병을 말한다.

병의 양상이 수두와 비슷하나 수두는 몸통에 주로 발진이 생기는데, 수족구는 손, 발, 입, 엉덩이 부위에 잘 생기며 몸통에는 잘 생기지 않고 흉터가 생기는 경우는 드물다.

2) 전염 경로

감염이 된 아이의 입에서 입으로 공기를 통해서 전염되거나, 분변-입, 혹은 분변-피부-입 경로를 통해서 전염된다.

3) 수족구병의 경과

처음 2-3일 동안 증상이 가장 심해서 아이가 잘 먹지 못하고 열이 많이 발생하는데 3-4일이 지나면서 호전되기 시작하여 대부분 1주일안에 자연 회복된다. 합병증으로 뇌막염, 뇌염등이 발생할 수 있으나 극히 드물다.

4) 치료

특효약은 없으며 자연치료가 되므로 대증요법이 중요하다. 초기에 심한 열이 발생하고 입안이 아파서 잘 먹지 못해서 탈수증상으로 속 늘어지고 잠만 잘려는 탈수증상이 오기 쉬우므로 수분 공급을 해서 탈수를 막는 것이 중요하다.

보리차를 조금씩 자주 먹이고 음식은 당분간 부드러운 음식(죽)을 주는 것이 좋으며, 아이를 시원하게 해주고 열이 심하면 해열제를 먹여야 한다.

그외에 다른 약은 아이에게 별 도움을 주지 못하고 3-4일 정도의 시간이 흐르면서 자연치료가 되므로 아이를 편안하게 해주면서 탈수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무균성 뇌막염〉

1) 원인

대부분의 경우에서 규명되지 못하지만, 규명된 경우 장 바이러스(enterovirus)가 가장 많고 (80% 이상) arbovirus, herpesvirus도 그 다음으로 흔한 원인이다. 예방접종으로 발생빈도가 많이 줄었으나 mumps에 동반되는 수막뇌염은 끊이지 않고 있다.

- Enterovirus : 뇌막에만 국한되어 경미하며 자연적으로 회복하는 경과를 밟는 것에서부터 심한 뇌염을 동반하여 사망 및 심한 후유증까지 유발시키는 경우까지 다양.

- Arbovirus : 국내에서는 주로 일본 뇌염 바이러스가 문제

- Herpes simplex virus type 1 : 소아 및 성인에서 산발적으로 발병, 뇌병변은 국소적, 70% 정도가 혼수 및 사망.

Herpes simplex virus type 2 : 출생 당시 산모에서 신생아로 전염
뇌병변은 미만성

- Cytomegalovirus : 면역 결핍 환자에서만 발생. 건강한 소아에서는 문제되지 않는다.

- mumps : 경미하나 제8뇌신경의 손상으로 인한 난청이 드물지 않게 발생

2) 역학

가장 흔한 장 바이러스에 의한 경우는 주로 여름과 가을에 발생되며, 사람과 사람으로 전파되고, 4~6일의 잠복기를 갖는다.

3) 증상

초기증상으로 연장아에서는 두통, 지각과민 / 영, 유아에서는 보채거나 다루기 힘든 경우가 있다. 사춘기아는 구후동통을 호소하며 발열, 구역, 구토, 목·등·다리의 동통, 골선 공포증이 흔하다. 체온이 올라가면 이상한 행동을 하며 의식 장애 및 경련이 올 수 있다.

국소적 신경증상은 변하지 않거나, 진행성이거나 기복이 있고, 배변 및 방뇨 조절 상실 및 자발적인 감정 폭발이 올 수 있다.

피부발진이 선행 또는 동반될 수 있으며 특히 echovirus, coxsachievirus, VZV, measles 및 rubella가 원인인 경우는 그렇다.

중추신경계의 바이러스 감염으로 나타나는 특이 임상상 및 합병증으로는 Guillain-Barre 증후군, 급성 황단성 척수염, 급성 편마비 및 급성 소뇌성 운동 실조증이 있다.

4) 검사소견 및 진단

5) 치료

- 세균성 감염이 아님이 드러날 때까지는 정맥용 항생제 투여

Herpes simplex 바이러스 : acyclovir

다른 기타 바이러스 : 특별한 치료가 없는 실정이다.

- 대증요법

· 두통과 지각 과민에는 안정을 취하도록 하며 진통제를 사용할 수 있다.

· 뇌압 증가 - 뇌압을 떨어뜨리는 처치가 필요하며

· 혈중내 당, 마그네슘 및 칼슘치를 유지

· 신경발달 평가와 청력 평가

6) 예후

대부분은 완전히 회복된다. 그러나 뇌실질이 관련되어 심한 임상 경과를 밟는 경우는 예후가 상당히 나쁘다. 장 바이러스에 의한 뇌수막염에 걸린 2세 미만의 환자 중 약 10%는 경련, 뇌압 상승, 혼수 등의 급성 합병증을 경험하나 이들 모두 신경학적 예후는 좋다.

4. 수두(Chicken pox)

수두는 거의 대부분이 소아에서 발생하며, 전염력이 매우 강하고, 전신적인 발진을 동반하며,

어린이에게는 급속한 유행을 일으키는 질환이다.

1) 역학

주로 5-9세에 잘 발생하는데, 전염성이 매우 강해서 가족 내 수두환자가 있을 경우에 아이들은 거의 100%에서 감염을 일으키며, 환자의 타액을 통해 전파되거나 직접 접촉을 통해서 전염된다. 정상 소아에서의 수두 감염은 경미하지만, 면역기능이 저하된 환자, 신생아, 정상 성인에게서는 증상이 심하며 합병증이 흔하다.

2) 증상

수두 환자와 접촉했다 할지라도 바로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13-17일(11-21일)의 잠복기를 거쳐야 증상이 나타나며, 반점이 나타나기 하루전에 발열, 식욕부진, 권태감등의 증상이 있다가 빨간 반점이 몸통에 나타나게 되는데 점차 눈물방울 모양의 물집(수포)으로 변해서 딱지를 형성하게 된다. 가슴, 배, 몸통부위에서 시작해서 밖으로 퍼져나가 마지막에는 팔, 다리에 생기게 되는데, 빨간 반점과 물집, 딱지가 동시에 생기기도 하며, 물집은 3-4일 동안 생기며, 매우 가려워서 아이가 긁게 된다.

3) 전염되는 시기

피부에 반점이 나타나기 24시간 전부터 딱지가 모두 형성될 때 까지 전염성이 있다. 따라서 수두라고 판명되기 2-3일 전에 그 환자와 접촉했을 경우에는 전염될 수 있으며, 자기 아이가 수두에 걸렸을 경우에는 물집이 하나도 없고 모두 딱지가 생길 때 까지는 다른 아이와 놀게 해서는 안되며 유치원이나 학교에 보내어도 안된다.

4) 합병증

합병증으로는 피부에 2차적인 세균 감염이 가장 많은데 대부분이 아이가 가려워 긁어서 생기는 것이므로 금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폐렴, 패혈증, 관절염, 골수염, 뇌염, 신경염등이 있으나 극히 드물게 발생하며, 백혈병과 같이 면역기능이 저하된 아이에서는 아주 위험하다.

5) 치료

대부분 약 1주일 후면 피부 증상이 호전되면서 회복되며, 합병증이 없는 한 특별한 치료가 필요하지 않다. 그러나 피부에 2차 세균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매일 피부를 청결히 하고, 매일 옷을 갈아 입히며, 손톱을 짧게 깎아주거나 장갑을 끼워 피부에 상처를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가려움증이 있을 때는 칼라민로션을 바르면 도움이 되는데 칼라민로션을 바르면 아이가 흥해 보인다고 조금씩 바르는 경우가 있으나, 조금씩 바르면 충분한 효과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아이가 흥해보이더라도 약을 바르는 시기는 당분간이고 집안에만 있게 되므로 듬뿍 듬뿍 많이 발라주어서 가려움증이 없도록 해야 하고, 가려움이 심하면 가려움증을 감소시키는 약을 병원에서 처방받아서 먹여야 한다.

열이 있는 경우에는 해열제를 먹이는데 아스피린을 사용하면 치명적인 병이 생길 수 있으므로 아스피린은 사용해서는 안된다.

6) 예방 (수두 예방접종)

① 접종시기

- 생후 12개월 이후의 아이로 단 1회 접종한다.
- 기본 예방접종이 아니므로 모두 접종하는 것이 아니다.
- 예방 접종후 90% 이상 예방 효과

② 접종 대상자

- 수두가 유행하고 있는 병원에 입원해 있는 아이들.
- 수두에 걸린 경험이 없는 의료인 및 일반성인.
- 수두가 걸리면 위험한 질병이 있을 때. (급성백혈병, 악성종양 등)

③ 수두 예방백신의 접종 목적

- 수두에 걸리지 않게 해서 수두로 인한 합병증의 예방.
- 수두의 확산을 예방. (특히 학교, 유치원)
- 나중에 나타나는 다른 질병 (대상포진) 을 예방.

④ 부작용

- 1-8% 에서 국소반응, 발진, 열이 나타날 수 있다.

⑤ 접종 금기사항

- 열이 있거나 영양장애가 있을 때.
- 심장질환, 신장질환, 간장질환의 급성기.
- 항생제 과민반응시.
- 임신부.
- BCG, 홍역, 소아마비 등의 생백신 투여한지 1달 이내의 경우.

⑥ 수두 환자와 접촉했을 경우

예방접종을 했다 할지라도 100% 면역이 생기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수두환자와 접촉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으며, 수두 환자와 접촉했을 경우에는 접촉후 3일 이내에 백신을 접종하면 80-90%에서 예방할 수 있다.

위 장관염

- 세균성 및 기생충에 의한 설사는 개발 도상국에서, 로타 바이러스를 포함한 바이러스성 설사는 개발도상국은 물론 개발국에서 흔하다.

- Shigella, E. coli, Giardia lamblia, Cryptosporidia, E. coli O-157:H7은 감염을 일으키기

에 필요한 감염량이 적어서 사람에서 사람으로 전파가 가능하다.

<설사성 대장균 감염>

- 설사성 대장균에 의한 감염은 5-6세 미만의 소아에게서 계절상으로 여름철에 흔히 발생한다.
- ETEC, EIEC, EAggEC : 식품 매개성, 수인성으로 발생
- EPEC, EHEC : 식품 매개성, 사람과의 접촉
- 잘 익지 않은 햄버거가 EHEC에 의한 식품 매개성 집단 발생 설사의 가장 흔한 원인이다.

<대장균(E. coli O-157:H7) 감염>

1) E. coli O157:H7 이란?

① 일반적 대장균

- 사람과 동물의 대장에서 정상적으로 존재하는 세균
- 대부분의 대장균은 질병을 일으키지 않거나 가벼운 설사를 유발하는 정도임

② E. coli O157:H7

- 1982년 미국에서 처음 발견됨.
- 주요 증상 : 복통, 설사, 혈변

※ 특성

- 증상의 심각성 : 용혈성 요독증후군, 신부전이 발생한 환자에서 약 5%는 사망할 수 있음(전체 사망률은 0.1-0.2% 수준, 일본)
- 진단의 어려움 : 일반적인 설사원인균 검사로는 발견하기 힘들.
- 치료의 어려움 : 보통 사용하는 항생제에 듣지 않음.
- 환자의 대부분은 설사가 3-7일 지속된 후 완전히 회복
- 5세 이하 어린이와 노인에서는 위중한 증상이 올 수 있으므로 특히 주의해야 함.

2) 발생현황

① 세계적으로 20여개국에서 발생이 보고되고 있음

- (미국, 캐나다, 일본, 호주, 영국, 프랑스 등)
- 일본('97년 9월) : 1,700여명 발생, 3명 사망

② 미국의 발생 현황

- '82년 처음 발견된 이후 '95년말까지 60여건 집단 발생
- 매년 2만명의 환자 발생, 200여명이 사망하는 것으로 추정 (대부분 집단 발생의 경우에만 인지됨)

3) 감염경로

- ① 보균 소의 분변(장내 또는 배출)에 오염된 고기를 덜 익혀서 먹을 경우(생간, 육회, 덜 익힌 햄버거 고기)
- ② 오염된 야채를 덜 익혀서 먹을 경우
- ③ 오염된 식수 섭취
- ④ 환자의 설사에 오염된 의류 등을 통한 2차 감염

4) 진단

- ① 임상증상으로만 진단하는 것은 불가능
- ② 적절한 세균학적 검사에 의한 균 검출로 진단

5) 치료

- ① 설사에 대한 수분 보충과 전해질 교정이 가장 중요함
 - 기타 대증요법
 - 적혈구 파괴로 용혈이 심할 경우 수혈
- ② 임상적인 장운동억제제(지사제)나 항생제 사용은 피해야 함
 - 24시간 이상 장운동억제제를 투여한 경우 용혈성 요독증후군 발생 빈도가 높은 것으로 보고됨
 - 일부 항생제는 내성이 있고 용혈성 요독증후군 발생빈도를 높인다는 보고가 있음

6) 예방대책

- ① 소고기를 충분히 익혀 먹을 것(75℃, 3분 가열시 안전)
- ② 안전하지 못한 식수는 끓여서 먹을 것
- ③ 용변후 손을 깨끗이 씻을 것
- ④ 혈액성 설사자는 보건당국(보건소)에 즉시 신고



현장교육 (1)

밝음의 동네 나들이

임미녀 · 인천, 밝음어린이집 교사

바깥놀이 주제가 우리 동네로 정해져 톨툴이반(6,7세) 아이들과 동네를 돌아보기로 하였다. 이야기 나누기 시간을 이용,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아플 때 도와주시는 분들과 기관들에 대해 대토론을 마치고 밖으로 나갔다. 더위가 일찍 찾아와 굉장히 무덥고 덩이 따갑도록 밝은 날 열일곱 아이들과 나의 힘겨운 바깥나들이는 시작되었다.

새마을금고, 파출소, 소방서순. 생활주변에서 놀 대하는 곳이라 그런지, 많은 사례를 들어가며 어떤 경우에 와야 하는지, 그분들의 하는 일과 그 일에 대한 고마움을 서로 목청 높여 얘기했다. 119구급대는 많은 아이들이 TV를 통해 나보다 활약상을 더 잘 알고 있었고 아이들에게 거의 우상이었다.

파출소는 안으로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밖에서 주위만 땀땀했다. 오토바이와 경찰차에 더 관심을 갖는 아이들을 거의 떠밀듯 데려왔다. 그분들의 실제 일하는 모습과 일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까지 들었다면 그냥 그냥 알고 있는 것들이 확실히 머리 속에 자리잡혀 고마움이 한층 높아지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었다. 나는 편시리 아이들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다.

첫날의 아쉬움을 안고 둘째날은 동네 주변에 무엇이 있는지 알기 위해 들뜬 마음으로(내 생각) 밖으로 나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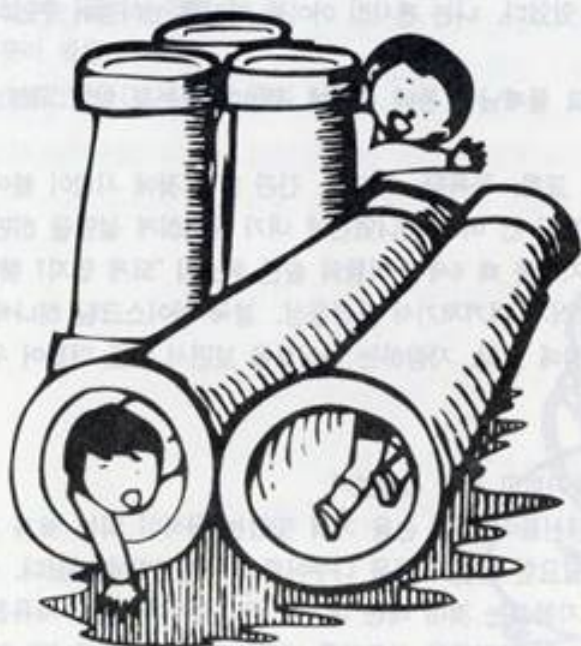
치고, 문방구, 학교, 교회, 목욕탕, 슈퍼... 간판 읽는 것에 시험이 붙어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는 아이들. 내가 생각했던 건 이게 아니었는데 내가 우아하게 설명을 하면 아이들은 "아하"그러면서 끄덕끄덕, 슈퍼를 지나올 때 6세 아이들의 슬픈 목소리 "되게 덥지? 햇볕은 나만 따라와, 아이스크림은 잘 있나?" 그러자 여기저기서 웅성웅성. 결국 아이스크림 하나씩 입에 물고서 한없이 행복한 모습으로 어린이집에 도착. 자람하는 아이들을 보면서 나도 더불어 우쭐해하며 바깥놀이를 정리했다.

마지막 날은 시장 돌아보고 각자 시장보기.

시장에 있는 야채·생선들이 얼마 손을 거쳐 맛있는 음식이 되는 것과 시장이 없어졌을 때의 어려움 등을 얘기했다. 필요한 물건과 돈을 나누어주고 시장보기에 나섰다. 두명씩 짝을 지어주고 사야 할 물건 얘기, 돈 지불하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한 다음 아이들이 자유롭게 시장 안을 돌아다니며 값도 물어보고 사야 할 물건들을 사오기를 바랐는데 내 옆을 떠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두

눈만 말뚱말뚱. 내가 말하는 대로 영무새처럼 받기만 했다. 6.7세 아이들이기에 각자 종이에 사야 할 물건들을 적어주고 시장보기를 했더라면 아이들도 활동적이고 다양한 생각과 재미를 누렸을 것 같다. 수개념이 확실치 않아 값을 치르는 데도 적잖은 어려움을 겪었고 거스름돈을 받아야 하는지 어째야 하는지를 몰라 돈을 낸 뒤 물건만 달랑 들고 돌아서는 아이들도 꽤 있었다. 하나씩 자기가 산 물건을 들고 나오면서 국 끓여 먹자느니, 반찬을 해 먹자느니, 아이들은 신이 나서 조잘조잘거렸다. 무거워 보여 들어주겠다는데도 아이들은 굳이 사양을 한다.

어린이집에 도착해서 사온 물건들을 풀어놓고 누가 사온 것이며 값을 묻자 서로들 이름을 대며 천원이랬다 삼백원이랬다 이백칠천원이랬다 않나, 아무튼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지만 아이들에게 즐거운 시간을 갖게 했고 엄마, 아빠에게 신나게 떠들 얘기꺼리를 만들어 주었다는 게 나를 흐뭇하게 했다. 아차, 또 실수. 아이들에게 영수증 받아오는 것을 안가르쳐주었다.



현장교육 (2)

아이들이 들려주는 옛날이야기

· 씨썩이어린이집 ·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있는 씨썩이어린이집은 낮잠 자는 시간에 늘 옛날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처음엔 교사가 들려주다가 아이들에게 기회를 주니 어토록 재미나게 옛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만들기도 하네요. 아래의 이야기는 아이들이 하는 옛날이야기를 녹음해 놓았다가 그대로 받아 적은 것이예요. 씨썩이 아이들과 옛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고, 여러분도 오늘 낮잠시간에 한번 시도해보는 것이 어떨까요?

★ 하람이(6세)가 들려주는 <팔죽 할머니와 호랑이>

옛날 옛날에요, 어떤 팔죽할머니가 있었어요. 근데요, 이 팔죽할머니는 맨날 팔발만 열심히 밟아서 메고 있었어요. 근데 어떤 호랑이가 나온 거예요. 그러더니 호랑이가 "할멈, 할멈 잡아먹으러 왔어!" 했더니 안된대요. 그러면 "이 팔죽은 누가 누느냐?" 했더니, 그럼 "할멈, 나하고 밟매기 시합하자." 했더니 그렇게 밟매기 시합을 하는 거예요. 할머니가 이렇게 풀을 '픽' 하잖아요, 그러면 호랑이는 앞발로 풀을 3개 뽑으고, 또 할머니가 2개 뽑으면 뒷발로 4개 뽑으고... 이래서 호랑이가 이겼어요. 그래서, 잡아먹는대요. 그래가지고 "이 팔죽을 아이들은 누가 주냐?" 했더니 그럼 안준대요. 팔죽도 먹고 그 할머니가 팔죽 줄 테니 그 팔죽 먹으래요. 그래가지고요, 할머니도 잡아먹고 팔죽도 먹고 이러래요. 그래갖고 다시 산으로 올라갔어요. 산으로 올라가서 이렇게 하는데, 또 호랑이가 나타난거예요. "할멈, 할멈 잡아먹으러 왔어." 했더니 "아직 안썩었잖아." 해갖고 다시 올라갔어요.

그래가지고 또 하루, 하루, 가을 지나서 이제 팔죽을 밧돌에다 다 갈았어요. 그런데 팔죽을 막 국에다 끓이면서, 막 엉~엉~ 울었어요. 근데, 그때 달걀이 '페굴페굴' 굴러와서 "할멈, 할멈 왜 우셔." 했더니 "오늘밤, 호랑이한테 잡아 먹혀서 운다." 했더니 "팔죽 한그릇 주면 내가 살려주지." 했더니 옆에 항아리가 있었대요. 근데 개는 막 한손가락에 빨리 먹고 '페굴페굴' 굴러가자구 아궁이에 몰래 숨었어요. 그리고 이번에 또 엉엉 우는데 자라가 '엉금엉금' 와자구 문을 '탁' 열고, "할멈, 할멈 왜 이렇게 슬프게 울고 있어?" 했더니, 오늘밤 호랑이한테 잡혀 먹는다는 이야기를 해서, "팔죽 한그릇 주면 내 살려주지." 했더니 이번엔 밧돌이 들면서 와자고 "할멈 왜 우셔?" 했더니 응, 오늘밤 호랑이한테 잡혀 먹는다는 이야기를 해서, "팔죽 한그릇 주면 내 살려주지." 해자구 또

이번엔 뱃물은 천정 위에 숨고, 이번엔 또 엉엉 우는데 이렇게 멍석이 나타났어요. '때구~울', 굴러가지고 '할멈, 할멈 왜 우셔?' 했더니 오늘밤 호랑이한테 잡혀 먹는대요. 그래가지고 인제 '팔죽 한그릇 주면 내 살려주~지.' 해 가지고 또 주고 인제 한 숟가락밖에 안 남았어요, 팔죽이. 근데 인제 지게가 '엉그작 엉그작' 와서 '할멈, 왜 우슈?' 했더니 오늘밤 호랑이한테 잡혀 먹는다고 또 했어요. 그랬더니 '팔죽 한그릇 주면 내 살려주~지.' 해가지고 팔죽 한그릇 더 줬더니, 이제 없어요. 그래가지고 또 먹고 지게는 저기 밖에 마당에 숨고, 멍석은 마당에 이렇게 깔아 놓고 그랬어요.

인제 호랑이가 눈이 많이 눈보라가 치니까, 호랑이가 '아이구 추워, 아이구 추워.' 하면서 막 오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호랑이는 힘이 아주 세서, 호랑이가 '팍~', 뛰어오니까 바람 때문에 '탁' 깨진 거예요. 불이, 아궁이 불이. 그래가지고 할머니가, 아니 호랑이가 '할멈 왜 불 꺼? 나 들어오는데.' 했더니 '아, 니가 바람 불어서 켜잖니?' 했더니 할머니가 했더니, 할머니가 또 '그럼, 아궁이에서 불 좀 가지고 와서 켜라.' 했더니, 그래서 불을 막 피울려고 하는데 갑자기 불덩어리가 된 달걀이 '확' 호랑이 눈을 때렸더니 '아이구, 눈이야. 아이구, 눈이야.' 하면서 '커적커적' 하면서 화장실을 갔어요. 그랬더니 '물~물~' 해서 자라가 손을 꼭 물었더니 '아이구, 손이야.' 하면서 가는데 이때 뱃물이 천정에서 '파당~' 했더니 아! 송곳도 있었다. 송곳은 이렇게 마당에 바닥에 놓고 이랬어요. 근데, 이제 뱃물이 '팍' 떨어져서, '아이구, 허리아.' 하다가 거기를 지나가는데 으음, 너무 아파서 그만 이렇게 앉은 거예요. 송곳 있는 데에 근데 송곳이 '통침' 했더니 '아이구 통꼬야.'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인제 지쳐서 있는데, 옮겨니 하고 멍석이 와서 '뽕뽕뽕' 말으니깐, 인제 지게가 호랑이를 '홀썩' 들더니 이렇게 막 가서 바다에 가서 바다에 '퐁당~' 빠뜨려서 호랑이는 죽구, 자라, 송곳, 또 달걀, 또 멍석, 또 지게 이렇게 살았어요. 뱃물까지. 끝이에요.

★ 건석이(6세)의 <구물구물 이야기>

옛날 옛날에요. 어느 깊은 산 속에요, 호랑이가 있었는데요. 어느 사람이 가고 있는데 호랑이를 만났어요. '아이고 무서워' 하고 말 타고 빨리 갔는데 호랑이가 계속 따라오는 거예요. 무서워서 집에 도착했는데요. 집에 도착해서 밥 먹고 있다가 나갔는데요. 근데 어떤 동생이요 '엄마, 학교 다녀왔습니다.' 그러는데요. 지렁이가 '구물구물' 오는 거예요. '음~ 지렁이네, 음~ 이거 어떡하지?' 그래서 지렁이를 책상 위에다가 놔는데요. 자꾸 '구물구물' 그러는 거예요. '지렁아, 그러지 마.' 그렇게 해도 자꾸 '구물구물' 그러는 거예요. 안되겠다 싶어서, '그러면, 이거 버려야겠다.' 해서 버렸는데 자꾸만 밖에서도 '구물구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예유, 이걸 어떡하지~. 예유, 이걸 어떡하지. 끝이에요.

★ 병규(6세)의 <도깨비와 코끼리 이야기>

옛날 옛날에요. 어떤 사람이 살았는데요. 사람이 어디 놀러가고 있는데요. 또 사람이 나타났어요. 왜 부르느냐고 했는데요. 이 사람이요. 방구 돼지구나 했는데 아~이젠 가야지 하면서 도깨

비를 찾으러 갔는데 갑자기 도깨비가 왔어요. 그래서요. '이 도깨비가 왜 왔어?' 했는데 '너를 잡아 먹겠다.' 해서 와~ 도망쳤어요. 그런데 도깨비가 자꾸 따라다니는데도, 자꾸자꾸 따라다니는데도 그래가지고 이제 이젠 구워 먹어야 되겠다 해서 잡아서 구워 먹었는데요. 구워 먹은 게 다 똑바로 된거예요. '아이구 근데, 이게 왜 그런 거야.' 했어요. 그 아저씨가 마술을 부려서 그래요. 그런데요 코끼리한테 갔는데 그 코끼리가 엄청나게 커서 도깨비를 깔아 뭉개 버렸는데요. 도깨비가 납작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는 납작공이 되었는데요 '여기서 놀거나 하자' 코끼리가 놀고 있는데요 코끼리 발자국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아! 왜 그런거야!' 하면서 하늘보다 코끼리가 더 높는데 하늘을 뚫 넘었더니 '아! 이게 왜 그런거야!' 하면서 하나님이 '이거 왜 그런거야.' 코끼리가 했는데 그 코끼리가 뭐가 그런지 알아요. '아, 이건 눈탱이 뺨탱이구나!' 하면서 먹었대요. 끝이에요.

★ 수호(6세)의 <요술할아버지와 코끼리 이야기>

옛날옛날에요. 새끼코끼리하고 아빠코끼리하고 엄마코끼리가 있었어요. 근데요, 새끼코끼리가요. 산에 올라가고 있는데요. 어디서요 '뽕'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소리를 따라서 가봤더니요. 요술할아버지가요. 어~, 지팡이로 나무예요. 그래서요. 거기서요. 코끼리가 막 이렇게 말했어요. '나도, 커다란 코끼리가 되고 싶어.' 그래서 요술할아버지가 커지게 했는데요. 아빠, 엄마가 놀랜 거예요. 그래서 작게 해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작게 해줬어요. 끝이에요.



현장소식



제2기 신진교사 교육을 받고 나서...

박선미 · 인천, 햇살어린이집 교사

누구에게나 시작이란 건 크든 작든 무언가 의미를 줄 것이다. 한번의 시행착오가 있던 내게 다시금 신진교사교육에 동참할 것을 제의해 준 건 햇살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 류지민선생님! 떨림과 기대를 안고 교육장소에 도착한 첫날, 그리 낯설지만은 않은 선생님들의 모습에서 조금은 편안해진 마음으로 고정미선생님께서 준비하신 강의에 우리 모두는 귀를 기울였다. 지탁연의 10년 활동사를 통해 지난 시간 속에 우리의 선배들이 어떤 길을 열어 놓았는지 우리가 앞으로 어떤 길을 닦아야 할지를 생각하게 했다. 졸립고 파분할거라 생각했던 조선경선생님의 교육철학. 그러나!! 결코 파분하지 않은-알고 있지만 의식 속에서 회피해져 가는 것들을 다시금 밝혀놓는-좋은 시간이었다. 이경미선생님께서 준비하신 멋진 뗏목이로 일정을 마감. 다음 만남을 기약하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둘째날 최화영선생님과 함께 한 시간 속에 난 우리가 너무나 하나임을 느끼며 가슴 벅차기도 했다. 사실 선생님께서 주신 자료도 충분히 읽지 못한 자리여서 숙제 안해온 학생처럼 조금은... 그렇지만 바쁜 일과 속에 우리의 사정을 헤아려 주심에 큰 문제가 되지 않았고 몇가지 질문 속에 한결같은 답들을 해내는 선생님들을 보며 찌한 동지애를 느낄 수 있었다. 또 한번 멋진 뗏목이

식을 준비해주신 이경미선생님. 새내기들에게 열심히 소모임을 소개하시는 선배선생님들과의 시간으로 하루를 마감했다.

세번째 일정이었던 영화보기에는 무서운 공포영화를 무사히 보고 오셨다는 소문이...!!!

마지막 일정은 산행이었지만 비가 오는 관계로 우리는 최화영선생님덕에서 뭉쳤다(내젠 다행스러웠던 일로 기억된다). 아파트 옥상에서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삼겹살 맛있게 구워 먹고 수료식때 할 공연도 비밀리에 준비하고... 아쉽게도 수료식에 참석하지 못했지만 준비하시고 축하해주신 여러 선생님들께 감사할 따름이다.

인천보육교사회 2기 선생님들! 우리 힘내고 열심히 뛰자구요. 내년 3기 수료식때 훌륭한 축하공연도 하고...

하나됨을 위해! 하나일 때 우리 모습 너무 아름답잖아요.

유아교육법안 관련의견 제출에 대한 회신

귀회에서 대통령 비서실에 제출한 "유아교육법안에 대한 입장"을 표명한 문서가 우리부에 이송되어 왔습니다. 귀회의 관심과 의견개진에 감사드리며, 앞으로 영유아보육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계속해 나가겠음을 알려드립니다.

보건복지부장관

민원회신

1. 귀회가 대통령 비서실과 우리부에 제출한 민원에 대하여 그 내용을 검토한 바 유아교육법 제정에 관한 내용으로 유아교육에 관한 정책 수립시 참고하겠으며
2. 교육부는 교육개혁추진위원회에서 심의·확정('97.12.30)한 "유아교육개혁 추진방안"을 소요예산의 확보 단계에 맞추어 단계적·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이의 시행을 위한 법안을 관계부처간의 협의 및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해 이해관계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할 계획임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끝.

교육부장관

소모임 소개

우리것을 배우합니다

강선희 · 전북, 금암어린이집 교사

"땡 땡 땡땡 따따..."

매주 화요일 6시 30분 전주시 삼천동 외각지로 조금 빠져나가면 어김없이 들려오는 소리이다. 풍물을 배우기 시작한지 2달, 9명의 회원들이 모여 가락 외우랴, 손으로 장구 치랴 정신이 없다.

'놀이사랑', 말 그대로 놀이를 사랑하는 소모임이다. 홀로 노는 아이들에게 놀이를 통한 어울림을 만들어 주고자 한다. '놀이'는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단어일 것이다. 아이들은 놀이를 통해 친구를 만나고 사랑하는 방법을 배운다. 여기서 '놀이사랑'이 지키고자 하는 것은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의 음악, 소리, 춤을 재미있는 놀이처럼 언제 어디서나 함께 어울려 할 수 있게 흥미를 주고자 하는 것이다. '놀이사랑'은 96년 전북지역탁아소위원회(전탁위)가 교사모임으로 새로이 시작하려 할 즈음에 회원배가의 목적으로 소모임의 필요성을 느끼며 3개의 소모임(한소리, 이야기나라, 놀이사랑)을 만들었다. 이렇게 하여 시작한지 3년, 97년 11월에는 제1차 소모임 발표회를 가졌고 이로써 조금이나마 일반교사들에게 보육교사회를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었다. 이러한 좋은 성과를 업고 새로운 각오로 다시금 시작해 보았지만 올해 초 각 시설의 상황이 좋지 않아 잠시 주춤하였고, "아차!"하고 정신을 차려보니 벌써 4월(?). 회원들과 첫 모임을 갖고 98년도 '놀이사랑'의 사업을 논의하게 되었다. 국악교육이 보편화 되어가고 있는 지금의 교육에서 교사인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한다는 생각에 가장 빨리 접할 수 있는 풍물을 배워 보기로 했다. 우리 것에 대한 회원들의 관심과 배움에 대한 연정으로 매주 열심히 배우고 있다. 때로는 가락을 외우지 못해 선생님의 부르는 가락을 열심히 받아 적어 그 종이를 장구에 붙이고 치는 등 가락을 잊지 않으려고 우연히 애쓰고 있다. 하지만 돌아서면 또 기억나지 않은 가락들... 까마귀 고기를 먹지 않았는데도 까딱까딱 잊어버리는 불쌍한 이름...

'이것이 한계인가?'라는 슬픔도 잠시 잊은 채 '다음 시간에 다시 가르쳐 주겠지'라는 기대를 가지고 아쉬움을 느끼며 또 하루의 모임을 정리한다.

열의를 가지고 함께 만든 우리의 사업은??

- 5월-7월 - 풍물감상(강사를 모시고 일정가락을 구성하여 아이들에게 활용할 수 있도록)
- 8월 - 춤사위 익히기(춤의 기본동작과 명칭을 알기)
- 9월 - 율동 창작(우리 음악을 찾아서 우리의 모습으로 율동을 창작)
- 10월 - 발표회를 위한 국악프로그램 개발, 자료집 만들기
- 11월 - 제2차 소모임 발표회

현재 풍물모임은 매주 화요일 6시30분에 삼천동 롯데어린이집에서 갖고 있습니다. 8월부터 있을 모임의 장소는 다시 정해집니다.

연락은 이쪽으로 (0652) 253-0389 (금암어린이집)



사이버 정보망 ■■■■■

어린이독서 길잡이
상담실을 열어요

· 어린이도서연구회내 독서상담실 ·

최근 보육, 아동발달교육에 관련한 단체에서 PC 상담정보제공이 늘고 있습니다. 『우리네 아이들』에서는 이러한 정보를 현장에서 요익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책아 일을 매개이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래서 상담실을 열어요

어린이도서연구회 회원이나 또 회원이 아닌 분들이나 어린이 독서에 대하여 크고 작은 어려움에 부딪히는 때가 있을 줄 압니다. 내 아이에게 어떤 책이 알맞은 책인지, 어느 때 어떤 책을 읽혀야 할지, 어른은 좋아하는데 왜 아이는 좋아하지 않는지, 아이들이 책을 좋아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바람직한 독서 지도 방법이란 무엇인지, 정말로 좋은 책이란 어떤 것인지... 생각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어린이도서연구회에서는 좋은 어린이책을 권장하는 일을 우선적으로 하다보니, 이제까지 어린이나 학부모 또는 교사들이 갖는 어려움에 대해서 관심은 가졌지만 손이 미치지 못했습니다. 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 어린이 독서에 대한 여러 가지 궁금증에 대하여 묻고 답하는 상담실을 열었습니다.

이렇게 이용하면 됩니다

상담실에서는 누구라도 어린이 독서와 관련하여 궁금한 것을 물을 수 있습니다. 아직은 상담원이 날마다 있을 형편이 되지 못하므로 상담하는 방법은 편지나 글 전송으로 제한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는 까닭은 전화로 묻게 되면 한 사람에게 대답하는 시간이 길어지게 되어 회 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받게 됩니다. 또 상담을 원하는 다른 사람들이 전화를 할 때마다 통화중이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그래서 당분간 편지와 팩스와 하이텔로 상담을 받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궁금한 점을 바로 답을 듣지 못하기는 하지만 질문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훨씬 좋은 점이 많습니다.

이곳으로 보내면 됩니다

⇒ 주소 서울 종로구 와룡동 119-1 동원빌딩 506호

⇒ 하이텔 go CHILDB ⇒유니텔 go CBOOK

상담실장 조윤희

▲▲▲▲▲

좋은 그림책 소개

검피아저씨의 뱃놀이, 검피아저씨의 드라이브

존 버닝햄 글, 그림 / 이주영 옮김 / 시공사 / 각권 6,500원



이번에는 그림책 두권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 우리 기차에서 내려』라는 그림책을 보신 적이 있나요? 연령에 관계없이 다들 좋아했지요. 이번에도 그런 책입니다. 바로 그 작가 '존 버닝햄'의 그림책이죠. 작가가 유명한 관계로 작가에 대해 잠깐 이야기하죠. 작가는 그 유명한 영국의 '닐 썸머힐' 학교 출신입니다. 어린시절부터 아주 독특한 자기만의 세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죠. 커서는 그림책에 나오는 집 같은 시골 농장에서 살았습니다. 영국에서는 3대 일러스트 작가중의 한사람으로 손꼽힌답니다. 『뱃놀이』, 『드라이브』도 작가의 다른 그림책과 마찬가지로 아주 다양한 기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림만 보면

서도 여러 생각을 하게 하죠. '아! 이렇게 그릴 수도 있구나!', '아!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구나!' 하고 놀랜다니깐요.

한적한 시골마을에서 검피아저씨는 뱃놀이를 떠나려고 합니다.

"우리도 따라갈 수 있어요?" "그러렴, 하지만 ~하면 안된다."

맘씨 좋은 아저씨는 아이들과 온갖 동물들을 좁은 배에 태우고 뱃놀이를 떠나요. 하지만 아이들과 동물들은 아저씨의 약속을 어기고 말썽을 피우고, 그 결과 배는 뒤집어지고 강 언덕까지 헤엄쳐 나와 아저씨네 집에서 간단한 티파티가 열리고 다음 뱃놀이 약속을 뒤로 하고 아이들과 동물들은 각자의 집으로 향합니다.

중간중간 그림책을 읽어주는 동안 우리 아이들의 반응도 재미있었어요 (영유아 어느반을 막론하고 거의 비슷한 반응을 보임).

예를 들면 아저씨가 댕에서 "그러렴, 하지만 날개를 퍼득거리면 안된다."의 장면을 읽어주면 곧장 아이들끼리의 속닥거림이 이어집니다.

"푸드덕거리지? 그치!"

모든 장면에서 같은 반응을 보입니다. "~하지, 그치!" 서로 확인하면서 기뻐하고 깔깔거리고.

간결한 대화체의 반복은 아이들을 이야기 속으로 빨아들이고 커다란 글씨는 한참 문자에 관심 있는 아이들을 자극합니다 (자꾸 혼자서 읽으려고 하더라고요). 『검피아저씨의 드라이브』도 비슷한 형식입니다. 지루한 장마철 그림책 속에서나마 뱃놀이, 드라이브 떠나시지 않을까요?

소개하는 이 : 고영미 (그림책을 좋아하는 교사모임, 근로복지공단 안산어린이집 교사)



● 그림책에 관심있는 교사모임을 하고자 합니다.

관심있는 교사는 본 회로 연락 바랍니다. ●

가정마당

7월1일 가정폭력방지법이 시행됩니다

· 가정폭력방지법 제정특별위원회 ·

다음달 1일부터 가족에게 폭력을 휘두르면
집에도 못들어가고, 생활비와 치료비를 물어야
하는 등 엄격한 처벌을 받게 된다. 대법원은 29
일 '가정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7월1
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전국 가정보호사건 담당재
판부 회의를 열고 가정폭력에 대해 적극 대처하
기로 했다.

법원은 가족을 폭행한 사람에 대해 △6개월
동안 피해자 접근금지△친권행사 제한△보호관찰
△상당소위탁△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의료기관
위탁△12개월 감호시설 위탁등의 '보호처분'을 내
리기로 했다.

보호자가 보호처분을 받지 않으면 '보호처분
불이행죄'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의 벌금을 무는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또 경찰은 가정폭력 사건 신고를 받으면 반
드시 출동해 폭력행위를 즉각 막고 피해자를 보
호시설 또는 의료기관에 호송하게 된다.

한겨레신문 6월30일

가정폭력이란?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형제자매 및
기타 동거가족을 포함한 가족구성원 중의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의도적으로 물리적인
힘을 사용하거나 정신적인 학대를 통하여 고통을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주로 아내나 아동·노인 등 사회·경제적
약자에게 많이 발생하며, 심각한 신체적·정
신적 손상뿐만 아니라 자아존중감을 해치는
언어폭력, 성적 학대 및 방임과 유기도 포함
됩니다.

가정폭력방지법 제정의 의미는 이 렇습니다.

[가정폭력방지법]이 제정됨으로써 그동안
개인의 일, 사적인 일로 여겨왔던 가정폭
력이 이제 사회적인 문제로 받아들여지게 되
었습니다.

누구든지 가정폭력사건을 신고할 수 있습
니다. 가정폭력은 당연히 공권력에 의해 저
지되고 피해자가 보호받아야 하는 범죄행위
입니다.

은폐된 가정폭력으로 시달리는 피해자가
더 이상 없어야겠습니다. 가정폭력사건의 조
기발견을 가능케 함으로써 가정폭력이 은폐
되지 못하도록 하여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
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하게 합니다.

심각한 폭력을 미리 예방합니다.

진행중인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경찰은 응급조치(폭력행위의 제지 및
범죄조사 등)를 취해야 합니다.

경찰이 조기에 개입함으로써 가정폭력사
건이 심각하게 확산되는 것을 미리 예방하여
가정폭력사건이 심각한 형사사건으로 발전되
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방지법은 이렇게 구성되 어 시행됩니다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사건이 발생합니다.

→ 경찰에 신고가 들어갑니다

→ 경찰이 출동합니다

(경찰이 출동하면 즉시 아래와 같이 응급조치
를 취합니다)

① 폭력행위를 제지하고 범죄에 대해 수사를
합니다.

② 피해자가 원하면 가정폭력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 인도합니다.

③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자는 의료기관으로
인도합니다.

④ 폭력이 다시 발생할 때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경찰은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합니다.

→ 검사는 사건을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지, 일반형사사건으로 다룰지 결정합니다.

→ 검사는 사건을 재판부로 보냅니다.

→ 가정보호사건으로 조사·심리되는 동안
이를 위하여 혹은 피해자를 위하여 판사는
가해자에게 아래와 같이 임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①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이 사는 곳에서 퇴거
등 격리시킵니다.

② 피해자가 사는 곳 혹은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을 금지시킵니다.

③ 의료기관이나 기타 요양소에 위탁시킵니다.

④ 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유치시킵니
다.

→ 법원에서 조사·심리가 끝납니다.

→ 가정폭력방지법에 의한 보호처분을 내릴

지 일반형사사건으로 처리할지 내려집니다.
이때 피해자는 손해배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
다.

→ 가해자는 항고·재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 가정폭력 예방을 위한 10가지 지침 >>

1. 어떤 상황에서도 폭력은 사용하지 맙시다.
2. 자녀들에게 매를 들기 전에 다시 한번
생각합시다.
3. 평소 폭력적인 말과 행동을 삼갑시다.
4. 남이 폭력을 사용하는 것을 보면 제지합
시다.
5. 가까운 경찰서와 가정폭력 상담기관의
전화번호를 메모합시다.
6. 심각한 폭력이 일어나는 위기상황인 경
우 바로 경찰서에 신고합시다.
7. 경찰은 가정폭력 신고가 들어오면 즉각
출동합니다.
8. 의사나 간호사는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
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줍니다.
9. 가정내 폭력을 호소하는 가족이나 친구
에게는 상담기관을 안내해줍니다.
10. 가족간의 대화를 통해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도록 노력합시다.

세상읽기

교육개혁 그 형태의 고통을 준비하자

위양자

본회 전 부회장

“교육은 인간이 생물학적 존재로 탄생하는 경이와 똑같은 경이와 탄생 속에서 가능할 때, 한 생물학적 인간을 인류역사에 동참시키는 것이고 자신의 삶에 주인이 되게 하는 자연스러우면서도 위대한 일이 되리라 생각된다.”

교육, 교육개혁, 참교육, 올바른 교육개혁... 과연 무엇 하자는 것인가.

아마 새로운 교육관계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기만 하면 가능할 것처럼 보인다. 국회가 잘 운영되고 소위 말하는 교육관료들의 저항만 극복할 수 있으면 “개혁”은 가능하고, 이제까지 있었던 교육의 문제점들이 봄날 눈 녹듯이 사라질 것이라는 기대를 어떤 언론은 홍보하고 있기도 하다.

“교육”에 대해, 어떤 수식어가 붙지 않아도 되는 그런 “교육개혁”을 위해 온 국민은 할 말이 참 많을 것이다. 기존교육의 수혜자였던 혹은 소외되었던 간에 그런대로 할 이야기는 있다. 제도교육의 틀 속에서 소위 성공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공통으로 갖는 어떤 생각은 없을까, 혹 있다면 과연 무엇일까.

어느날 우연히 반가운 사람을 만났다. 서로 손을 맞잡고 어떻게 살았니 어디 사니 등등을 묻고 서로 연락처를 건네고 집에 돌아와 바쁘게 또다른 반가운 사람에게 전화를 한다. “예, 나 오늘 길에서 우연히 초등학교때 00를 만났는데 글세, 개 옛날에는 공부도 못하고 코만 질질 흘리고 다니더니 영 판 사람됐더라. 우린 뭐니?” 하며 신세한탄이 이어지는 드라마를 본 기억이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에게 있을 것이다. 드라마뿐 아니라 주위의 가까운 사람들에게서도 심심찮게 볼 수 있는 꼴이다. 언제 들었는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한 선생님께서 학생들을 분류하시면서 어떤 부류는 수업시간의 요점을 정확히 기억하고 또 다른 부류는 요점은 잊고 그시간에 했던 우스갯소리만 기억한다고 하며, 인생에서 누가 성공할 것 같냐, 요점 정리를 잘 해서 머리 속에 팍팍 넣어야 한다고 친절하게 인생에서 성공할 수 있는 가장 멀고 좁은 길을 가르쳐 주셨던 기억이 있다.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보내며, 몸을 움직이고 싶어하는 아이들의 왕성한 욕구를 자유롭게 해소하는 가운데 놀며 생활 속에서 기호를 발견하는 기쁨을 맛보아야 할 아이들에게, 기호를 기억하게 하려고 받아쓰기를 하는 오로지 그것이 유아교육의 핵심인 양 떠들썩한 교사들과 부모들을 너무 많이 만나 우리 나라 교육이 조산으로 인한 문제를 갖게 될 것이고 그것을 치료하기 위해 또 낭비를 하게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또 했다.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가니 불평 불만이 구체화된다. 하루

에 한 가지씩만 배웠으면 좋겠어. 숙제는 안내줘야지, 언제 놀라고 하는지 모르겠다. 입시위주의 교육을 탈피하기 위해 열린 학습을 한다고 열린 학습지를 매일 3-4장씩 내주고, 중간 기말시험이 없어졌다며 형성평가시험으로 점수를 매기고 부모님 도장을 받아오라고 하고, 시험이 없어지고 열린 학습을 하니가 사지선다형 학습은 학교에서 시킬 수 없으니 이달학습지 중간학습지 기말학습지를 부모님이 가정에서 지도해야 교육이 된다고 문제지를 정해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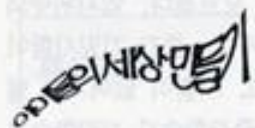
사람이 학교에 들어가는 시기는 몇말에도 미운 일곱살이라는 말이 있는 나이이다. 왜 이런 말이 생겨났을까 하나만 생각해도 이 시기 아이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 짐작할 수 있지 않나 싶다. 교육자의 권위는 도저히 어떻게 해볼 수 없을 정도로 높게 받아들여진다. 유치원시기에 엄마말을 더 듣던 아이도 학교에 들어가면 선생님이 제일 무서운 사람이 된다. “아니야, 우리 선생님은...” 이런 대꾸가 늘고 “싫어요, 누군 맘에 안들어.” 하며 자기 감정에 충실하려고 어거지를 피우기도 한다.

아마 미운 일곱 살 이후 시기동안 가졌던 감정의 갈등과 불안이 사춘기를 맞으며 절정을 이루고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나가며 자신의 생각을 밀어붙이려고 하며 자신과 다른 사고들과 갈등하며 모난 곳을 점차 다듬어가는 시기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교육개혁의 핵심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아마도 관심이 집중되고 중요하기도 한 것 같다.

교육은 결코 ‘학교’ 안에서만 이루어져야 하는 것인가? 교육이란 ‘학교’를 초월한 세계 속에서 인간 존재 전체에 관련된 것으로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 적어도 교육개혁이 필요하다면, 원인은 무엇이고 그 원인이 문제가 되는 것은 왜인지. 한 인간, 개인과 가정, 사회가 유기적으로 연관된 속에서 인간의 자연스런 성장과 발달에 대한 생각들을 합의하려는 근본적인 노력은 언제 했었나, 혹 그것이 필요한 것은 아닌가. 교육이라는 밖으로부터의 행위에 의한 어떤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기관이나 학자들의 이해관계를 조정해서 만든 단일한 법안을 만드는 일이 과연 가능할까. 정권이 바뀔 때마다 혹은 시행착오가 있을 때마다 또다시 떠들썩하게 교육개혁을 위해 법안을 고쳐야 하는 낭비의 연속이 될 것이 뻔하다. 앞날이 뻔한 일을 굳이 계속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그렇다면 해서 어떤 ‘주의’를 외치고 그것의 실행자가 되자는 이야기는 아니다. 그것은 이미 헤아레니 몬테소리니 눈높이니 열린교육이니 너무 많이 전시되었다. 우리 교육의 이념이 일례로 “홍익인간”이라면 그것이 유구한 역사 속에서 인간의 성장과 발달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자연스러울 수 있었는지, 순간도 멈추지 않고 변화하는 우리 아이들의 속에서 바라보려는 “마음의 눈”들을 맞추는 일. 바로 이 일을 대통령과 교육부장관이 출발점으로 인식할 때가 “교육개혁”을 위한 진정한 출발점일 것이다. 그를 위한 준비작업이 이제라도 시작되어야 한다. 어떤 부모에게나 조산은 반갑지 않다. 아무리 의학이 발달해도 인간의 출생자체가 갖는 어려움을 근본적으로 없앨 수는 없다.

교육은 인간이 생물학적 존재로 탄생하는 경이와 똑같은 경이와 탄생 속에서 가능할 때, 한 생물학적 인간을 인류역사에 동참시키는 것이고 자신의 삶에 주인이 되게 하는 자연스러우면서도 위대한 일이 되리라 생각된다.

한 인간 혹은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대하”교육을 꿈꾸고 싶은 소망 간절하다. 그 속에 유아교육은 개혁되고 자연스러울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한미어린이집에서 생긴 일

☺ 이야기 하나 · 한술 더 떠요!!!

<환경을 보호할 수 있어요> 이야기 나누기 도중 무스와 스프레이가 나쁜 가스를 내므로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선생님 : 무스와 스프레이를 사용하면 어떻게 될까?

온 미(6세) : 가스... 레이지가 나오요.

덕 외(6세) : (무언가 길어 생각하더니) 그래서 머리에 붙어 나오!

선생님 : ???

☺ 이야기 두울 · 나도 강아지 좋아하는 데

수민이 할머니가 수민이를 데리러 오셨다.

수민이 할머니 : 우리 강아지 잘 놀았어?

그때 옆에 서 있던 온수.

온수(4세) : 할머니네 강아지 있어요? 보여줘요. 나도 강아지 좋아하는데...

수민이 할머니 : ???

☺ 이야기 셋 · 너 선생님이 오래

아이들이 모두 기차를 너무 좋아하여 똑같이 나누어 준 후 선생님이 조각영역으로 이동하였다.

선생님 : 선생님이랑 색막대놀이하고 싶은 친구 오세요.

온수(4세) : (인송이의 기차를 뺏으며) 너 선생님이 오래.

인송(4세) : ???

☺ 이야기 넷 · 친구 이름은 바로 알아야지...

민우(5세) : 선생님 '병승이'가요...

선생님 : 민우야, 병승이가 아니고, 병승.

민 우 : 예, 그러니까 병승이가요..

선생님 : 자, 민우야, 선생님 따라해 보. 김병승!

민 우 : 김병승

선생님 : 김병승!

선생님 : 그래, 병승이가 뭐?

민 우 : 병승이가요...

결국 민우는 아직까지 친구 병승이의 이름을 제대로 발음하지 못하고 있다.

☺ 이야기 다섯 · "일부러"라는 말은 말이지...

점심식사후 신체활동실에서 싸움이 일어났다.

선생님 : 왜, 울었어?

동 호 : 병승이가 밀었어.

선생님 : 병승이가 동호 밀었니?

병 승 : (끄덕 끄덕)

선생님 : 왜 밀었어? 일부러 밀었니?

병 승 : 네

동호는 본에 안 풀려 계속 씹씩..

선생님 : (무안) 병승아, 병승이가 일부러 동호를 밀었어?

병 승 : 네.

선생님 : (진짬) 병승아, 알고 동호를 밀었니?

병 승 : 아니요.

선생님 : 병승이가 모르고 동호를 밀었지?

(안도) 병승아, '일부러'라는 말은 모르고 실수로 한 일을 말하는 거란다.

어린이집에서 아이들과 한강 씨름하다 보면 지칠 때도 물론 가끔씩은 있지만 그럴 때마다 힘을 주는 건 다름아닌 아이들의 해맑은 모습일 겁니다.

아이들과 지내다 그냥 혼자 있기엔 너무 아까운 일화들을 모아가다 『아이들의 세상 만들기』로 보내주세요. 재밌음이 따로 있나요?

우리들의 목소리(1)

「영상매체의 교육적 활용」 강의를 듣고

권소희 · 서울, 이화여대이집 교사

처음 「영상매체의 교육적 활용」이라는 교사 소모임 강좌를 보았을 때 내가 평상시 관심 있었던 분야이기도 하고 옆반 선생님의 "같이 들어요"하는 웃소리에 자의반 타의반으로 강의를 듣게 되었다.

「영상매체의 교육적 활용」 참 딱딱한 말이다. 제목의 느낌에서도 그러하듯이 나 또한 강의를 듣기 전에는 교육용 비디오를 어떤 식으로 수업에 활용할까? 좀더 나아가 '좋은 교육용 비디오 고르기 정도'까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첫 강의를 들으러 갔다.

교재를 받아 들었다. 깨알같은 글씨들, 줄지는 않을까? 그런데 웬걸! 선생님께서 강의와 함께 내가 좋아하는 '곰돌이 푸'를 비롯해 여러 가지 재미있는 만화영화를 잠깐 잠깐 보여주시는 것이다. 그때부터 내 눈은 초롱초롱 빛나기 시작했다. 아! 이게 바로 영상매체의 교육적 활용의 실예가 아닌가? 졸린 눈에 빛을...

두번째, 세번째 수업은 더욱 흥미로울 것 같다. 자주 보지는 못하지만 아이들이 좋아하는, 실은 나도 좋아하는 '달의 요정 세일러문', '그레이트 다간', 내가 정말 좋아하는 디즈니 만화영화 모니터 한 후 토론하기. 모니터 하기, 제 버릇 남 못 준다고 나는 내가 아닌 교사의 눈으로 모니터 하기 시작했다. 일본만화인 '달의 요정 세일러문'과 '그레이트 다간'은 나쁜 점

무성이다. 나의 노트엔 어느새 나쁜 점들이 뿔뿔이 써 있었다. 이렇게 나쁜 점이 많으니 아이들에게 보지 말라고 해야겠다. 그래도 재미있긴 한데...

나는 숙제를 끝낸 아이처럼 호호한 마음으로 두번째 강의를 들으러 갔다. 그런데 이게 웬 일인가? 나보다 더 비판적일 줄 알았던 감사님이 긍정적 면과 부정적 면 이 두가지를 같이 이야기해주는 것이 아닌가? '좋은 점이 있었던가?' 나는 나쁜 점만 가득 써 놓은 내 노트를 다시 한번 바라보았다.

디즈니 만화 모니터 하기. 인어공주, 라이언 킹... 별로 나쁜 점을 찾아내지 못하겠다. 물론 나쁜 점이 아주 없는 건 아니지만 그나마 아이들에게 권할만한 비디오인 것 같다. 세번째 강의. 강의와 토론이 끝난 후 대부분의 어른들이 여과없이 보여주는 디즈니 비디오가 실은 더 무서울 수도 있다는 것. '그래! 역시 영상물은 별로 좋지 않아 되도록 보여주지 말자' 이런 나의 생각이 네번째 강의 후 많이 바뀌었다.

만화영화를 좋아한다는 감사님의 한 마디가 잊혀지질 않는다. "영상매체가 아이들에게 좋은 영향을 준다고 볼 수는 없어요. 하지만 21세기는 영상매체와 뗄래야 뗄 수 없는 때가 오게 돼요. 무조건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최선일까요?" 그렇다면 무조건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이들은 위하는 길일까? 보지 못하게 한다고 과연 보지 않을까? 나의 뇌는 '교사, 교육적, 도덕성' 이런 생각들로 너무나도 경직돼 있었다. 이런 경직된 사고는 나쁜이 아니라 강의를 듣는 선생님들 모두 마찬가지인 것 같았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우리 교사들, 아이들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아이들을 가르치려는 경직된 사고로 일관하는 것은 아닌지... 나 자신이 부끄러웠다.

흐르는 물을 막을 수는 없다. 그러나 깨끗한 물을 흐르게는 할 수 있지 않은가! 그게 바로 우리 교사들의 몫인 것 같다. 나쁜 비디오를 보더라도 아이들의 힘으로 왜 나쁜지 알아내고

분별하는 힘을 길러주는 것. 주는 물만 받아먹는 온실 속의 화초가 아닌 스스로 자라나는 들 풀로 키우는 것. 그것이 바로 참교육이 아닐까? 강의를 듣고 난후 나의 경직된 사고가 많이 부드러워졌음을 느낀다.

마지막으로 우리 어린이집 교사 화장실에 붙어 있는 공수 생각이 떠오른다. '당신 스스로 그어 놓은 마음의 선이 너무 많습니다.' 혹시 우리 교사들 스스로 그어 놓은 마음의 선이 너무 많은 건 아닌지...

우리들의 목소리(2)

「여고괴담」을 보고서...

박혜경 · 인천, 희망세상어린이집 교사

신진교육을 받는 우리는 좀더 친해질 기회를 갖기 위해 영화를 한편 보기로 했다. 선택된 영화는 '여고괴담'이었다. 두려움반 호기심반으로...

당시 시간은 밤 9시.

10분이나 늦게 들어간 극장 안, 스크린 안에 펼쳐진 광경은 '늑은 여우'라는 교사가 끔찍한 모습으로 살해당하는 현장이었다. 그리고 영화는 줄곧 우리를 피로 얼룩진 교실 안을 떠날 수 없게 만들었다.

이야기는 이렇다. '지오'라는 아이가 있다. 이 친구를 무척이나 따르는 '재이'라는 아이가 있고, 그 친구는 평범하기 그지없어 영화내내

별 주목을 받지 못한다(물론 마지막에 역전되기는 하지만...). 또, 공부만 열심히 하는 그렇지만 늘 2등밖에 하지 못하는 아이. 이들을 주인공으로 누구나 한번쯤 들었음직한 그런 이야기를 만든다. 게다가 히스테리한 '늑은 여우', 성적만 중시하고 여학생을 마치 성적 누리개처럼 취급하는 정말 성질 × 같은 '미친 개', 이 학교를 졸업한지 9년 되는 학생이 교사가 되어 돌아오면서 이야기는 시작된다.

여기서 학교는 사뭇 전쟁터와 비슷하다. 경쟁 속에서 진정한 우정은 없다. '재이'라는 아이가 그렇듯 1등이 아닌 사람은 주목받지 못하는, 반의 머리수 채워주기에 국한된 그런 현실은 '재이'가 죽은 후 9년동안 같은 학교를 다니고 3년마다 졸업앨범에 같은 얼굴이 있음에도 그런 것은 아무 관심도 아무런 의미도 없다. 진정한 우정도 없다. 개성은 말살된 학교, 더 나아질 것도 더 나아지려고 노력하지도 않는 우리의 현실을 말한다.

아무튼 영화는 너무나 현실적으로 우리를 두렵게 한다. 무섭기보다는 소름 끼치게 한다. 머리를 풀고 소복을 입은 귀신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정신병자나 공동묘지가 배경도 아니고 귀신은 죽은지 얼마 안되는 시체 따위는 거들떠도 보지 않는다. 단지 진정한 우정을 찾고자 하는 단정한 교복차림의 참한 여학생이 나올 뿐이다. -사실 아무도 그가 주인공 귀신이지 예측하지 못한다. 아마 그래서 더욱 우리를 공포스럽게 하는지도 모른다. 너무나 흔한 얘기를 눈으로 보는 공포를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영화를 보고 나서 나는 줄곧 많은 반응을 했다. 어리다. 이유는 우리 아이들을 괴롭히고 어찌면 권위적일 수도 있었던 내 모습을 돌아보며...

"혹시 당신이 다니는 학교에 누군가가 10년째 이곳을 같은 나이로 다니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퍼즐 퍼즐(제10회)



지난호에도 퍼즐 정답자가 있었습니다. 당정토성 분은 아래에 소개 하였습니다. 아다 조금 잊으면 경품이 도착하겠지요? 주위분들에게 다 구대구 자랑하시기를...

다음호에도 어떤처럼 응모자가 많이 나왔으면 합니다. 그럼 여러분 퍼즐 열심히 풀어서 스트레스는 확 풀어제끼고 신나서 아이들 열심히 봅시다!!!

정답은 다음호에 나오는 거 알죠?

당정자 : 여근성

□ 오개 바로 지난호 제9회 퍼즐 퍼즐 정답여요.

<가로열쇠>

① 운동에 의해 일정 시간에 인체가 섭취할 수 있는 최대 산소량을 높이는 일 ③ 서로 돕는 일 ⑤ 거리에서 숙식을 해결하는 일. 부엌이라고도 하고 좀 유식한 이들은 홀리스족이라고도 합니다 ⑦ 엄마놀이, 병원놀이 등 ○○○○를 통해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이해를 높여갈 수 있죠 ⑨ 지난호 '이달에 권하는 책'에서 소개된 예 다 레산여사의 저서 ⑪ 선거에 의해 선출된 의원 등이 임기중에 사직, 실각, 사망 등으로 꺾적이 생긴 경우에 하는 선거 ⑬ 세계에서 가장 물구나무서기를 오래 한 사람? 세계에서 가장 긴 손톱을 가진 사람은? 알고 싶으면 이 책을 찾아보면 되지요... ⑮ 학비로 드는 돈 ⑯ '이제 더 이상 가르칠 것이 없으니 그만 ○○하거 라.' ⑰ 이 병의 대표적 환자는 김자옥. 대표증후로는 사과만 보면 잠이 온다나요? ⑲ 피의자 등을 연행하기 에 앞서 꼭 구두로 알려야 할 사항들이 있지요.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안그러면 불법연행. ○○○법칙

<세로열쇠>

① 지난호에서 게재된 표갑수님의 유교법 개혁안 제 안중 하나. 취학아동의 연령을 1세 하향조정하여 초 등학교 체제내에 포함시키는 방안 ② 길으로는 같은 행동을 하면서도 속으로는 각각 딴 생각을 한다는 뜻 이죠 ④ 지하철 1호선 소사역과 중동역 사이에 있습 니다 ⑤ 노동자가 자주적으로 노동조건을 유지·개선 및 경제적·사회적 지위 등의 향상을 목적으로 조직 하는 단체의 줄임말 ⑥ 복숭아보다 조금 작고 붉은 색으로, 시큼하면서도 달다 ⑧ ○○○○○프로그램 이란 동기를 유발할 수 있도록 이야기 형식으로 구성 하여 전개상황을 정확한 동작의 신체활동을 통하여 체력적 요소와 운동을 하는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운동기본기술, 게임, 율동 등을 복합적으로 발 달시킬 수 있도록 개발한 것입니다 ⑨ 불의의 사고로 생기는 손해에 대하여 보상하는 보험 ⑪ 같은 혈통의, 할아버지 이상의 대대의 어른 ⑬ 여름나기 필수품. 예 어론보다 전기를 훨씬싼 덜 소비한답니다. ⑮ 한여름의 무더위를 몰아냈던, 거대한 식인상어가 등장하는 공포 영화. 식인상어의 이름이기도 했죠 ⑯ 과연 정주영씨 덕에 우리도 가볼 수 있을까요? 그런데 여기에 골프장 이니 스키장이니 하는 것도 만든다는데 그건 좀... ⑰ 월드컵 본선 첫 골의 영웅이 되었다가 2분만에 백태클 로 퇴장당한 고개 숙인 태극전사 ⑲ 인신매매의 첫 희생자. 호녀 심청이의 몸값. ○○○ 삼백섬 ⑳ 조선 인조 때 청나라가 침입해온 난리. 이듬해 청과 굴욕적인 화약을 맺게 되었죠.



보육계 풍향

‘우리교육’ 교사 워크숍

1. 음악교육 워크숍 “민족의 정서가 살아있는 우리 음악 배우기”

날짜	시간	강의주제	강사
7/27	16:00-18:00	· 워크숍열기	노동은(목원내 음대학장)
	저녁	· 여는 강연 - 우리 음악교육의 뿌리를 찾아서	
7/28	오전	· 전통음악교육은 왜 해야 하는가 · 전통음악에서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가	이동재 (서울시교원연수원국악강사)
	오후	· 전통음악은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가	주태원(서울교대부속초교교사)
	저녁	· 옛 아이들 노래(전래동요)의 현장과 세계	표해문(안동대 민속학과 대학원)
7/29	오전	· 맺는 강연 - 전래동요와 우리 문화에 대한 새로 운 인식	홍양자 (‘배앗긴 정서 배앗긴 문화’ 저자)

2. 놀이 워크숍 “재미있는 놀이, 신나는 교실 만들기”

날짜	시간	강의주제	강사
7/27	16:00-18:00	· 워크숍열기	이상호
	저녁	· 주제강연 : 놀이중심의 학급운영방법 찾기 · 강강술래 배우고 해보기	정윤주
7/28	오전	· 주제강연 : 교육현장의 놀이적용 사례 및 교사의 역할 · 마당놀이1 · 놀잇감놀이1	김수연
	오후	· 주제강연 : 놀잇감과 우리 놀잇감에 대한 이해 · 놀잇감 놀이2 · 마당놀이2	김덕용
	저녁	· 학교행사에서의 놀이적용	이덕숙
7/29	오전	· 주제강연 : 작은 놀이 한마당 운영의 필요성 · 작은 놀이 한마당	유근태

장 소 : 경기도 용인 KID종합경영연수원

참가비 : 13만원

문의처 : 우리교육 02-3142-6775-8

98년 발도르프 여름 아카데미 안내

일 시 : 1998년 8월15일 - 8월19일

장 소 : 강남대학교(경기도 용인시 신갈), 천은관/심전관

내 용 : - 발도르프교육과 인지학

- 자유 발도르프학교 교육 내용/실제

- 자유 발도르프유치원 교육의 내용/실제

- 예술분야/ 오이르트리

참가비 : 20만원(농협 145-02-237905 예금주 김석태)

문 의 : 032-872-0587 김석태

후 원 : 독일 슈프리트가르트 자유대학, 도르트문트 발도르프 사범대학 공동, 세계슈타이너 교육예술 협회, 자유 발도르프학교 연맹, 국제 자유발도르프 유치원연합회원

주 최 : 한국슈타이너 교육예술 협회

아동지도사 워크샵

일 정 : 1998년 8월20일(목)-8월21일(금) 09:00-17:00

- 아동지도사 자격시험대비 특강 및 아동발달전문가 워크샵

1998년 8월22일(토) - 아동지도사 자격시험

장 소 : 서울여자대학교

대 상 : 아동지도사 - 아동관련학과 졸업생 및 1998년 8월 졸업예정자

참가안내

· 참가비 : 아동지도사과정 - 5만원, 아동지도사 자격시험 수험료 - 3만원

· 선착순 150명 마감(한국아동학회 사무실로 문의 후 입금)

기타문의 : 02-972-9576

주 최 : 한국아동학회

한국어린이육영회 유아와 함께하는 신체활동

교육일정 : 8월18일-19일(제31회), 인원 240명

내 용 : * 기초강연 - 유아를 위한 신체활동의 바람직한 방향

* 워크숍 - 도구를 이용한 신체활동 / 몸을 이용한 신체활동 / 시설물을 이용한 신체활동

동 / 전통놀이를 이용한 신체활동

장 소 : 한국어린이육영회 연수원

참가비 : 45,000원

준비물 : 체육복, 운동화

문 의 : 02-422-1855

한국기독교유아교육연합회 하기 연수회

프로그램 : 주제강의 - 생명을 귀하게 자연을 아름답게

유아경제교육 이론과 현장적용의 실제

신체표현의 실제

지각운동발달 학습이론과 실제

감성통합활동 표현놀이 프로그램

놀이활동

일 시 : 8월3일-4일

장 소 : 육영재단 어린이회관

참가비 : 40,000원

문 의 : 02-204-6100

빈곤가족을 위한 가족 상담소

빈곤가족은 경제적 문제뿐 아니라 그로 인해 파생되는 심리, 정서적 문제가 심각함에도 그동안 이들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가톨릭대학교 부설 춘의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빈곤가족의 문제해결 능력을 향상시키고 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전문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가족상담소〉에서는 생활상 문제에 관한 내용이면 무엇이든 상담이 가능하다.

* 상담내용 : 부부문제, 부모-자녀문제, 가정폭력, 기타 생활상의 어려움, 법률문제

* 대 상 : 가족 성원 누구나

* 상담방법 : 전화상담 - 월~금(오전 10시~오후6시)

면접상담 - 전화상담 후 실시

* 문 의 : 가톨릭대학교 부설 춘의종합사회복지관 032) 653-6121 / 653-6131(구내번호 206)

소식과 소식

영상매체의 교육적 활용

지난 5월 19일부터 6월 9일까지 4회에 걸쳐 영상매체의 교육적 활용 강좌가 있었다.

교육센터의 보육교사 전문성강화훈련 프로그램 가운데 하나인 이 강좌에서는 어린이들이 좋아하고 일상 생활에서 접하는 만화영화의 특성, 만화영화가 아이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

참여하신 교사들이 만화영화를 직접 모니터해 보는 시간도 있었는데 아이들보다 더 만화영화를 좋아하는 분들이 많아 활기찬 토론 분위기가 이루어졌다. 감사해서 교사들이라 확실히 만화영화를 보는 관점이 보수적이라는 평을 하였는데 이

말이 교사들로 하여금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는 계기를 만들어주었다. 교사들의 고정 관념이 만화영화를 보는 시각을 정형화하는 것이 아닌

가, 또다른 측면에서 바라 보면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 것까지 캐어내는 교사의 열린 생각이 아이들의 환상 세계를 이해하는 데 필요하지 않나, 하는 문제의식을 풀어 넣어주었다.

참석하신 분들이 예상보다 적었으나 그래서 더 많은 생각을 나눌 수 있었다. 좀 더 심화된 내용으로 들어가려면 4회의 교육은 너무 짧다는 의견도 있었고 이런 교육이 지역마다 실시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주셨다. 앞으로 교육센터교육에 대한 많은 조언을 주시기 바란다.



컴퓨터로 어린이집 기 살리기

지난 6월 13일 한국보육교사회 교육센터에서는 '보육교사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컴퓨터 교육'이 있었다. 스므명 남짓의 보육교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어린이집에서 활용할 수 있는 편집기술 익히기(가정통신문 꾸미기, 주간계획안 만들기)', 두번째 강의로 '통신 활용을 위한 교육(나우누리 접속·사용법, 인터넷 접속하기)'이 이루어졌다.

건강교사 양성을 위한 특강

6월 19, 20 양일에 걸쳐 종로성당에서 건강교사 양



성을 위한 특강을 실시하였다. 보다 많은 교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무료강좌로 전환해서 실시하였는데 양일에 걸쳐 70명의 교사와 원장선생님들이 참석하였다. 짧은 시간에 많은 내용을 전달하려다 보니 시간이 부족하여 아쉬운 감이 없지 않았다.

이번에 마련한 특강은 건강교사 양성을 위한 사전 교육의 의미가 컸으므로 보다 심화된 교육을 차후 준비하고자 한다.



한국보육정보연구소

■ 한국보육정보연구소는 지난 5월부터 3개월 과정으로 성남 일하는 여성의 집에서 (방과후 아동지도사 과정)을 개설하고 있다.

■ 한국보육정보연구소가 시민운동지원기금으로 연구발표한 [아이들이 실천하는 생활중심 환경교육]이 보육

사에서 근간으로 출판될 예정이다. 가격 미정.

인천보육교사회

■ 새로운 근무지 축하합니다.

위준임선생님이 명성어린이집으로, 최금자선생님이 부천의 한우리어린이집으로 근무지를 옮기셨습니다. 새로운 출발 축하하고요. 더욱더 열심히 모습 부탁해요.

■ 6월20일 회원의 날 및 신진교사 수료식이 있었습니다.

밝음어린이집 이연숙 선생님의 '어린이집에서의 미술교육' 강

의가 회원들의 큰 호응속에 진행이 되었고, 5명의 신진교사교육을 마친 선생님들이 화려한 수료식과 뒷풀이가 이루어졌습니다.

새내기 회원들 축하합니다. 유지민(햇살), 박선미(햇살), 임미녀(밝음), 백혜경(희망세상), 김미현(해맑음어린이집)

■ 7월12일 '들꽃따라'의 북한산 산행이 있습니다.

남부보육교사회

■ 남부보육교사회는 6월27일~28일 회원MT를 장흥유원지로 다녀왔습니다.

첫날은 조직부에서 준비한 성격유형 알아보기(MBTI), 유아교육법(안) 제정 진행상황 보고, 서울수돗물 불소화사업 경과보고, 여름연수 참여 독려와 남부보육교사회 상반기평가가 있는 후 진한 뒷풀이가 있었습니다. 다음날은 야외조각 전시장을 모두가 관람하고 MT를 마쳤답니다.

부산보육교사회, 대구보육교사회(준)와 광주보육교사회, 전북보육교사회는 영남권, 호남권 여름연수 준비가 한창입니다. 모두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사람들

■ 회비를 내셨습니다 (98년 5월30~7월 3일 현재)

■ '97년 미납분

나은미 1개월분, 류필녀 1개월분, 김강희 1개월분

■ '98년 1월분

▶ 서울 : 진경선

****'98년 2월분**

▶ 서울 : 진경선

****'98년 3월분**

▶ 서울 : 진경선

****'98년 4월분**

▶ 서울 : 김량희

▶ 인천 : 김동준, 김정숙, 노승경, 박옥선, 박은아, 박은정, 안경아, 위준임, 이명숙, 이상미, 임민행(지난호 누락), 이인희, 이진실, 최금자, 최은하, 이은희

▶ 광주 : 주경남, 박화명, 최미라, 유희원, 김경아, 이정미, 배미정, 김영금, 김영란, 김수중, 박말신, 천미애, 신연주

****'98년 5월분**

▶ 서울 : 김량희, 오윤정
▶ 인천 : 김동준, 김정숙, 위준임, 이명숙, 이상미, 이인희, 이진실, 최화영, 최금자

▶ 경기 : 나은미, 서지혜, 김영임

▶ 기타 : 위양자

****'98년 6월분**

▶ 서울 : 오윤정, 김수연, 이경녀, 주혜민, 박인해, 황호정, 서미연

▶ 부산 : 김영수, 김옥정, 김혜원, 김효정, 박찬주,

윤현진, 이미애, 최정임, 한혜정

▶ 경기 : 전경숙(6월까지 완납하였습니다. 지난호에 누락), 나은미, 류필녀

▶ 기타 : 정희연, 이선주, 서은희, 임남희, 최순옥, 박정애, 위양자, 황미혜

****'98년 7월분**

▶ 경기 : 서울 : 오윤정

****'98년 8월분**

▶ 서울 : 오윤정

후원에 감사합니다.

■ 오윤정선생님께서 4만원 후원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원 가입 하셨습니다.

■ 목명화, 김선아, 박부자, 이순덕님이 회원가입하셨습니다.

**본회 6월
활동**

6/ 2 영상매체의 교육적 활용

집행부회의

9 영상매체의 교육적 활용

집행부회의

12 여연 조직위원회 회의
전북보육교사회 교사교육 참가(회장, 조직부장)

13 보육교사 직무능력 강화 훈련 - 컴퓨터를 통한 정보활용능력, 실무력 강화훈련

16 집행부회의

17 좋은 그림책 100권 보기
18 부천 원미구 국공립교사 모임 '그림책 강의'(강사:오윤정)

19 건강교사 양성을 위한 특강 - 보육아동의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위하여

20 건강교사 양성을 위한 특강 - 보육아동의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위하여

21 이사회

23 집행부회의

25 좋은 그림책 100권 보기, 북부지역 색종이 강좌 시작

26 북부지역 교사모임

30 확대집행위원회

■ ■ ■ 편집부에서 ■ ■ ■

♣ 이번호는 합본호입니다.

『우리네 아이들』은 7.8월에 합본호로 나갑니다. 알고들 계시죠?

여름이라 글 쓰는 것도 힘든지 평소보다 원고마감이 많이 지연되어서 별 수 없이 『우리네 아이들』이 많이 늦어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마음 같아서는 달력이 새 얼굴을 할 때마다 바로 바로 뵙고들 싶은데 그게 그리 간단하지가 않네요.

다음 9월호는 전처럼 9월 첫주에 찾아뵙니다. 이걸 정말 꼭 지킬게요.

♣ 이번호는 쉽니다.

이번호는 부득이하게 쉬는 고정난이 많습니다.

뽕뽕이 유빈이가 커가면서 보여주는 이야기를 담은 『육아일기』, 멀리 현해탄 건너 일본에서 오는 『오사카에서 온 소식』, 보육교사의 눈으로 풀어보는 바로 우리 모두의 이야기 『공트』 등 짧지만 재미난 글들이 이번호에는 실리지 않았습니다.

다음호에는 꼭 볼 수 있겠죠. 필자님들?

♣ 표지사진을 보내주세요.

『우리네 아이들』의 얼굴을 보내주세요.

아이들의 모습(울고 있어도 좋아요), 또 그런 아이들에게 뽕과 사랑과 시간을 바치는 우리 교사들의 모습,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들을 기다립니다.

보내주신 사진은 꼭 (!) 돌려드립니다.

♣ 회원 여러분의 생각과 원고를 간절히 기다립니다.

『우리네 아이들』은 보육교사의 대변지로, 다양하고 도움이 되는 소식지가 되도록 노력은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부족한 면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편집부의 헌신과 함께 회원들이 보내주는 각종 아이디어와 원고가 풍부하다면 더 없이 좋은 소식지가 되리라 믿기에 자발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나 아이디어, 또 교육현장과 생활현장에서의 글을 보내주시면 감사 또 감사하겠습니다.

교사들의 주체적인 참여만이 『우리네 아이들』의 살 길 (!) 이랍니다.

♣ 자료회비를 받았습니다.

1년구독 : 이근실, 조영숙

자료회원님의 자료회비를 받았습니다.

구독기간이 마감되어 재구독을 원하시거나 구두신청후 회비를 미납하신 회원님들께서는 빠른 시일내에 『우리네 아이들』, 계좌번호로 자료회원 회비를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금 후 연합회 사무실로 전화 확인해 주시는 것 잊지 마시구요.

특히 본인 아닌 타인명의로 단체명의로 송금하실 때에는 필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메모

본 회 6월

활동

본 회기 : 1999년 6월 15일

본 회장 : 김성숙(서울시)

본 회비 : 10,000원

본 회소속 : 서울특별시

본 회소재 : 서울특별시

본 회전화 : 02-1234-5678

본 회팩스 : 02-1234-5678

본 회홈페이지 : www.bokyo.or.kr

본 회회원 : 100명

본 회사무실 : 서울특별시

본 회사무시간 : 월요일 ~ 금요일

본 회사무시간 : 오전 9시 ~ 오후 5시

본 회사무시간 : 휴무

본 회사무시간 : 휴무

본 회사무시간 : 휴무

본 회사무시간 : 휴무

본 회사무시간 : 휴무

본 회사무시간 : 휴무

본 회사무시간 : 휴무

본 회사무시간 : 휴무

본 회사무시간 : 휴무

본 회사무시간 : 휴무

본 회사무시간 : 휴무

본 회사무시간 : 휴무

본 회사무시간 : 휴무

본 회사무시간 : 휴무

본 회사무시간 : 휴무

본 회사무시간 : 휴무

본 회사무시간 : 휴무

본 회사무시간 : 휴무

본 회사무시간 : 휴무

본 회사무시간 : 휴무

본 회사무시간 : 휴무

본 회사무시간 : 휴무

본 회사무시간 : 휴무

본 회사무시간 : 휴무



<퍼즐퍼즐 정답 응모지>

퍼즐 퍼즐 경품간치(?)에 참여를 원하시는 독자님은 퍼즐 정답 뿐만 아니라 그 밑에 밑에에도
작성하게 작성해서서 본 지면을 오려서 한국보육교사회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알표지에도 나오있지만 친절하게 사무실 주소를 알려드리지요.

(우) 100-391 서울 중구 장충동 1가 38-84 여성평화의 집 3층

한국보육교사회 『우리네 아이들』 담당자 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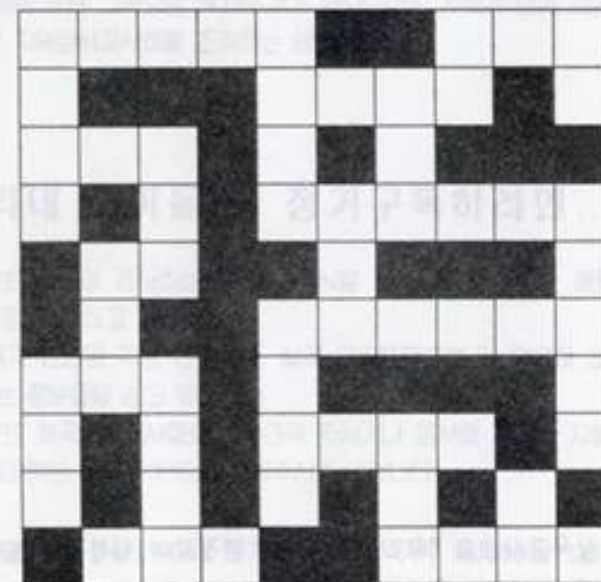
이라고 편지봉투 겉면에 써주시면 됩니다.

아장, 보내시는 본의 성함, 주소, 그리고 소속 시설명 잊지 마시구요.

첫 번째 부탁 : 회원님은 다음중에서 어느 경우에 해당하십니까? 해당번호란에
동그라미 해주세요.

- 1) 한국보육교사회 정회원
- 2) 한국보육교사회 준회원
- 3) 한국보육교사회 자료회원(『우리네 아이들』 정기구독자)
- 4) 기타 우연찮게 퍼즐에 응하게 된 사람

두 번째 부탁 : 제 10회 퍼즐 퍼즐의 정답을 아래 빈 칸에 적어주세요.



세 번째 부탁 : 『우리네 아이들』을 보신 후 바라는 점이나 건의사항 등을 가능
하면 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아마도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네 번째 부탁 : 한국보육교사회(또는 한국보육정보연구소)에 하시고픈 말씀이
있으시면 여기에 사정없이 적어주세요.

고맙습니다.

회원님의 글 한자 한자가 보육교사회와 『우리네 아이들』 편집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언제나 전화와 실은 이야기가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문은 항상 열려있습니다.

교 · 사 · 선 · 언 · 문

1. 보육교사는 교육활동에 있어서 자주성을 갖는다.
1. 보육교사는 항상 연구하고 실천하는 자세로 교육에 임한다.
1. 보육교사는 사회, 경제적 지위와 신분이 보장되어야 한다.
1. 보육교사는 '육아의 사회화'를 실현하기 위한 사회, 정치, 문화활동을 한다.
1. 보육교사는 '어린이 인권'을 소중히 하고 '인권보육'을 실천한다.
1. 보육교사는 우리 아이들이 국보의 소중함, 민족의 역사와 문화전통을 알도록 교육한다.
1. 보육교사는 아이들의 삶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교육환경의 개선,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한 활동
을 한다.

보육교사회 회원이 되려면

본회의 회원가입을 희망하는 분은, 지회나 지부가 있는 지역에서는 각 단위에 회원신청서를 내고 정회원
이 되기까지 준회원 활동을 하게 됩니다. 준회원은 모든 활동을 할 수 있으며 단, 총회의 의결권은 없습니다.

다음으로 지회나 지부를 통하지 않고 중앙으로 직접 들어오는 회원은 중앙의 관리 속에 한국보육교사회
활동-총회, 수련회, 각종 세미나와 강좌-를 할 수 있습니다.

준회원은 각 단위에서 결정한 준회원회비(가입비)를 내고 정회원과 동일한 자료나 회지, 중앙의 연락을
받습니다. 또한 준회원은 1년 이내에 신입교사교육(필수교육)을 받은 후 정회원으로 되며 회원결정은 각 지
부, 지회에서 하며 이사회에 보고한 후 총회에서 인준합니다.

중앙으로 직접 들어오는 회원은 중앙에서의 신입교사교육후 정회원이 되어 그 회원의 주거지, 보육시설
위치에 따라 지부, 지회가 있는 곳은 그곳으로 배치됩니다. 만약 지부, 지회가 없는 곳은 계속 중앙의 관리를
받으며, 이 회원들은 스스로 지역보육교사회를 조직하는 데 힘씁니다.

『우리네 아이들』을 정기구독하려면...

한국보육교사회에서는 보육사업에 종사하는 많은 보육시설 종사자와 관심있는 분들을 위해 보육활동의
갈잡이 『우리네 아이들』을 정기발간하고 있습니다.

『우리네 아이들』은 보육과 관련된 각종 연구결과, 실제 교육프로그램 및 영유아 교육의 이론 등 보육사
업을 수행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싣고 있습니다.

정기구독을 원하시는 분은 한국보육교사회로 전화연락 주시거나 교사회 지부나 지회 등을 통해 신청해주
시면 됩니다. 자료회비를 입금하신 후에는 반드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송금구좌: 국민은행 068-21-0479-041 정회원 (6개월 구독 16,000원 1년 구독 30,000원)

“ 보육시설 운영에 필요한 정보, 어디서 얻습니까? ”

정보 제공

- PC통신에 '어린이집, 놀이방 정보'를 제공하여 보육사업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지지를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시설 홍보

- 현재 전국의 5천여개 어린이집, 놀이방이 PC통신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시설명, 주소, 전화번호, 등을 적어 보내주시면 천리안, 하이텔, 유니텔에 광고해 드립니다.

교사 알선

- 선생님을 구하려는 시설과 보육사업에 함께 하실 예비 선생님들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연구소로 직접 신청하거나 PC통신을 이용하여 원하는 분들을 만나십시오.

연구 개발

- 보육사업의 전문 영역 연구와 정보개발을 통해 더 나은 보육시설 운영과 보육정책 발전을 꾀하고자 합니다.

어린이집 · 놀이방 정보이용

- 천리안 : GO BABY
- 하이텔 : GO BEBO
- 유니텔 : GO BEBO

어린이집·놀이방 정보이용		한국보육정보연구소 TEL: 02-358-1548	
1. 보육 시설 정보		2. 보육 시설 정보	
1. 전국 어린이집·놀이방 정보	2. 전국 어린이집·놀이방 정보	3. 전국 어린이집·놀이방 정보	4. 전국 어린이집·놀이방 정보
5. 전국 어린이집·놀이방 정보	6. 전국 어린이집·놀이방 정보	7. 전국 어린이집·놀이방 정보	8. 전국 어린이집·놀이방 정보
9. 전국 어린이집·놀이방 정보	10. 전국 어린이집·놀이방 정보	11. 전국 어린이집·놀이방 정보	12. 전국 어린이집·놀이방 정보
13. 전국 어린이집·놀이방 정보	14. 전국 어린이집·놀이방 정보	15. 전국 어린이집·놀이방 정보	16. 전국 어린이집·놀이방 정보
17. 전국 어린이집·놀이방 정보	18. 전국 어린이집·놀이방 정보	19. 전국 어린이집·놀이방 정보	20. 전국 어린이집·놀이방 정보
21. 전국 어린이집·놀이방 정보	22. 전국 어린이집·놀이방 정보	23. 전국 어린이집·놀이방 정보	24. 전국 어린이집·놀이방 정보
25. 전국 어린이집·놀이방 정보	26. 전국 어린이집·놀이방 정보	27. 전국 어린이집·놀이방 정보	28. 전국 어린이집·놀이방 정보
29. 전국 어린이집·놀이방 정보	30. 전국 어린이집·놀이방 정보	31. 전국 어린이집·놀이방 정보	32. 전국 어린이집·놀이방 정보
33. 전국 어린이집·놀이방 정보	34. 전국 어린이집·놀이방 정보	35. 전국 어린이집·놀이방 정보	36. 전국 어린이집·놀이방 정보
37. 전국 어린이집·놀이방 정보	38. 전국 어린이집·놀이방 정보	39. 전국 어린이집·놀이방 정보	40. 전국 어린이집·놀이방 정보
41. 전국 어린이집·놀이방 정보	42. 전국 어린이집·놀이방 정보	43. 전국 어린이집·놀이방 정보	44. 전국 어린이집·놀이방 정보
45. 전국 어린이집·놀이방 정보	46. 전국 어린이집·놀이방 정보	47. 전국 어린이집·놀이방 정보	48. 전국 어린이집·놀이방 정보
49. 전국 어린이집·놀이방 정보	50. 전국 어린이집·놀이방 정보	51. 전국 어린이집·놀이방 정보	52. 전국 어린이집·놀이방 정보
53. 전국 어린이집·놀이방 정보	54. 전국 어린이집·놀이방 정보	55. 전국 어린이집·놀이방 정보	56. 전국 어린이집·놀이방 정보
57. 전국 어린이집·놀이방 정보	58. 전국 어린이집·놀이방 정보	59. 전국 어린이집·놀이방 정보	60. 전국 어린이집·놀이방 정보
61. 전국 어린이집·놀이방 정보	62. 전국 어린이집·놀이방 정보	63. 전국 어린이집·놀이방 정보	64. 전국 어린이집·놀이방 정보
65. 전국 어린이집·놀이방 정보	66. 전국 어린이집·놀이방 정보	67. 전국 어린이집·놀이방 정보	68. 전국 어린이집·놀이방 정보
69. 전국 어린이집·놀이방 정보	70. 전국 어린이집·놀이방 정보	71. 전국 어린이집·놀이방 정보	72. 전국 어린이집·놀이방 정보
73. 전국 어린이집·놀이방 정보	74. 전국 어린이집·놀이방 정보	75. 전국 어린이집·놀이방 정보	76. 전국 어린이집·놀이방 정보
77. 전국 어린이집·놀이방 정보	78. 전국 어린이집·놀이방 정보	79. 전국 어린이집·놀이방 정보	80. 전국 어린이집·놀이방 정보
81. 전국 어린이집·놀이방 정보	82. 전국 어린이집·놀이방 정보	83. 전국 어린이집·놀이방 정보	84. 전국 어린이집·놀이방 정보
85. 전국 어린이집·놀이방 정보	86. 전국 어린이집·놀이방 정보	87. 전국 어린이집·놀이방 정보	88. 전국 어린이집·놀이방 정보
89. 전국 어린이집·놀이방 정보	90. 전국 어린이집·놀이방 정보	91. 전국 어린이집·놀이방 정보	92. 전국 어린이집·놀이방 정보
93. 전국 어린이집·놀이방 정보	94. 전국 어린이집·놀이방 정보	95. 전국 어린이집·놀이방 정보	96. 전국 어린이집·놀이방 정보
97. 전국 어린이집·놀이방 정보	98. 전국 어린이집·놀이방 정보	99. 전국 어린이집·놀이방 정보	100. 전국 어린이집·놀이방 정보

본 화면은 하이텔 제공 예시입니다.